삶을 예술로

2021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결과자료집

부평구문화재단

2021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결과자료집 [삶을 예술로]

삶을 예술로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결과자료집

부평구문화재단

삶을 예술로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결과자료집

부평구문화재단

2021년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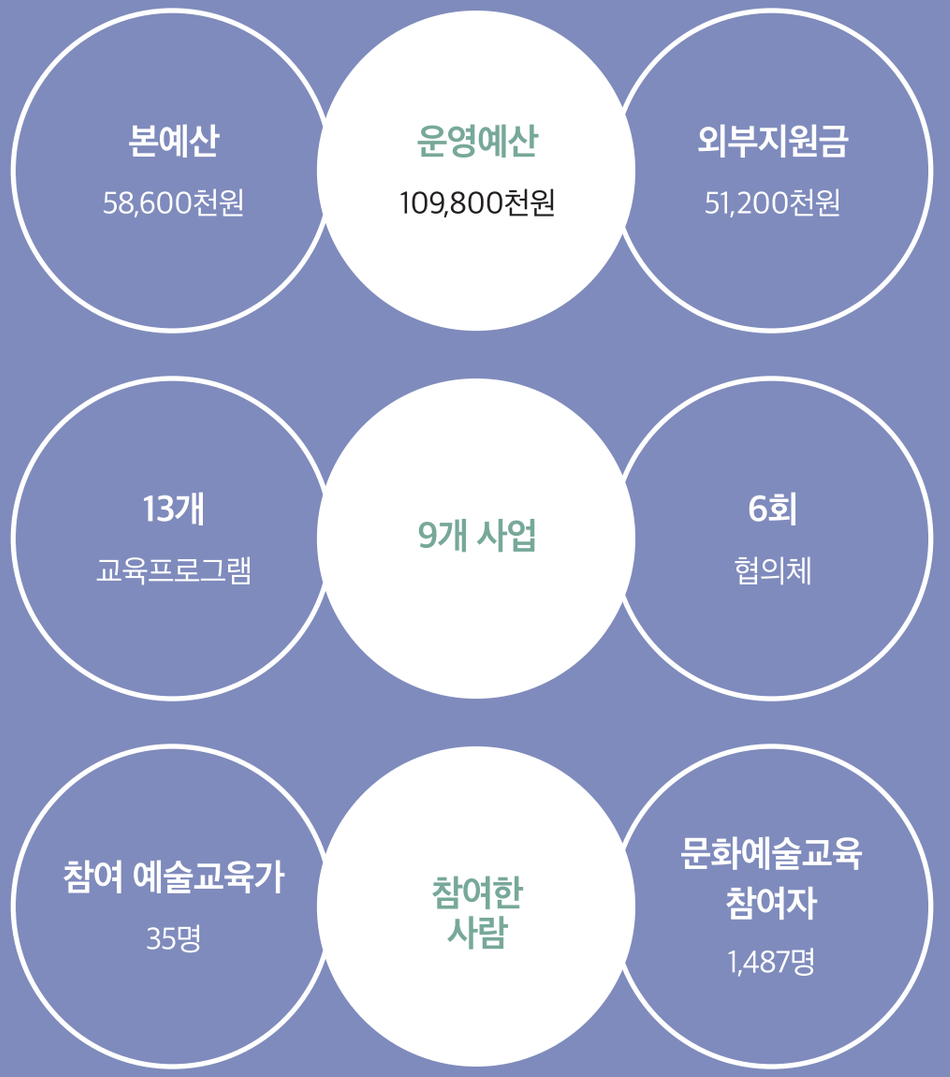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은 재단 설립 이후로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2021년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는 없었지만 우왕좌왕했던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감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서도 지역주민들의 일상과 삶을 예술로 만들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눈에 띄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개개인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서로를 마주하고, 이해하며 보듬어 줍니다. 올 한해 재단 문화예술교육은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예술단체, 예술가 등을 만나 부평의 문화예술교육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단발적으로 진행하던 문화예술교육을 2020년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맞게 전략을 세워 사업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올해 들어서 계획한 여러 사업들을 운영했습니다. 생애주기에 따라 영유아에서부터 중장년까지 아우를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여 운영했고, 이러한 교육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모두 담을 수는 없지만 올 한해 우리가 만들어 온 문화예술교육에는 교육 담당자, 함께 한 예술교육가들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해준 15~20개월 아기부터 초등학생, 중고생 친구들, 그리고 청년, 직장인, 주부, 중장년, 어르신 모두의 참여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그 과정과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애정 어린 눈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사업을 마치며, 부평구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삶을 예술로 만드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한 눈에 보기



2021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비전

삶을 예술로 만드는
문화예술교육

목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추진전략

- 지역문화예술교육 특성화
- 청소년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시민문화예술교육 확대
-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

운영사업

전략	대상	운영사업
지역문화예술교육 특성화	영유아	<시:작 연구소>
	어린이	- <어린이연극학교>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경이로운 미디어아트>
	중장년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싱싱 프로젝트>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청소년	- <교육연극: 슬기로운 학교생활> -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내 마음 스튜디오>
시민 문화예술교육 확대	성인	- 일상문화예술교육 <B-class> (삐-클라스) -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어른래퍼>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	-	<문화예술교육 협의체>
	누구나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아카이빙북 제작

CONTENTS

1 **지역문화예술교육 특성화** 9

01 영유아 문화예술교육 10

02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20

2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9

01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30

02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34

3 **시민문화예술교육 확대** 39

01 일상문화예술교육 40

4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 59

01 문화예술교육 협의체 60

5 **지원사업** 63

01 외부공모지원사업 64

1

지역문화예술교육 특성화

01
영유아 문화예술교육

우리 아이가 처음 만나는 예술은 어떤 모습일까?

<시:작 연구소>는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제공하고자 지역 예술단체와 교육자, 아동극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는 부평구문화재단의 영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해부터 공연 및 예술교육 전문 단체 '상상이상'과 함께 베이비씨어터(영아극) '배 안에서'를 교육 과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영아극 '배 안에서'는 15~20개월 아기와 보호자를 위한 발도르프교육학 기반의 공연으로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기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배우와 아기, 보호자의 감정 교류와 감각 자극에 집중한 참여형 공연이다. 공연에 담겨 있는 이야기와 감동을 교육으로 발전시키고자 발도르프 교육 전문가 허정희, 백미경, 신경심리학자 장재키, 연극 연출가 유홍영과 워크숍을 통해 영아 발달, 움직임 등을 연구하며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다. 공연에서 경험하는 시각과 촉각, 청각 등 12가지 감각을 세분화하여 담아내었고 아기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진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크, 양모, 나무 등 천연 소재의 교구들로 준비하였다.
올해 2월, 연구 과정 공유회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 1회, 정규 운영 1회를 통해 11팀의 아기와 보호자를 만나며 하늘에서 땅의 세상으로 온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작 연구소 - 15~20개월 아기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배 안에서'>

운영기간 • 시범교육 2021.10.18.~10.27. 월 수 금 15:00~16:00 (총5회)
• 정규교육 2021.11.17.~11.26. 월 수 금 15:00~16:00 (총5회)

운영장소 부평아트센터 스튜디오A

운영대상 15~20개월 아기 및 보호자 9팀

참가비 50,000원

예술교육가 극단 상상이상(김은미, 오연주, 이상명)

교육내용 하늘의 아이들은 땅의 세상으로 가게 될 날을 기다리며 일상을 보낸다. 때가 되자 하늘 아이들은 자신이 가고 싶은 땅의 집을 찾는다. 하늘 아이들을 돌보던 보름달 할머니는 하늘 아이의 부모가 될 사람들에게 태몽을 선물로 보낸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하늘 아이들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엄마의 배 안에 도착을 하고, 긴 동굴을 지나 빛으로 가득 찬 땅의 세상을 만나며 땅의 아이들이 된다.

교육목표
- 아기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스스로 자랄 수 있는 힘을 키워준다
- 15~20개월 아기의 발달 과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문화예술을 경험한다
- 자연 소재의 교구를 활용하여 12가지 감각을 경험하고 조화로운 환경에서 보호자와 교감을 나누며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회차	이야기 들려주기	12가지 감각 활동
1	하늘 아이들의 일상1 : 빵 만들기 보호자 교육1	양모공 놀이 양모공의 움직임을 따라 신체를 움직이고 천연양모의 온기를 손으로 느껴본다
2	하늘 아이들의 꿈 : 태몽	실크천 놀이 실크천의 움직임을 시각과 촉각으로 느껴보며 신체를 움직인다
3	하늘 아이들의 일상2 : 엄마의 배 안	그림자극 명도가 낮은 그림자극을 관람하며 포근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4	하늘 아이들의 탄생 : 생일 이야기	나무 모형 놀이 나무 모형을 탐색하고 변형시키며 촉각, 시각적 경험을 한다
5	하늘 아이들과의 만남 : 땅 보호자 교육2	모빌 놀이 자연물을 활용한 모빌놀이로 운동감각을 자극하며 따뜻한 관계를 경험한다

개발 및 운영과정

2021.02.06.

연구 과정 공유회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다목적홀

참여자 아기 및 보호자 2팀

자문단 유홍영(연출가), 허정희(발도르프교육전문가), 백미경(발도르프교육 전문가), 이완정(인하대 교수), 현광일(문화예술교육활동가), 정진주(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배 안에서>가 처음 공개 되는 날! 2020년 여름부터 시작된 연구와 배움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교육 프로그램을 아기들과 함께 했다. 예정대로라면 2020년 12월에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거창한 과정 공유회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아기들 건강이 우려되어 시기를 뒤로 미루었다. 올 2월, 꼭 한 번 만나 뵙고 싶었던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그동안 우리가 연구한 내용과 개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했다.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에 세 명의 예술교육가와 재단 담당자 모두 한 겨울에 손발이 젖을 정도로 긴장했다. 흐르는 땀이 무색하게 자문단 한 분 한 분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더 나은 프로그램을 위해 발달과정의 이해와 아기들을 대하는 태도, 연극적 표현 등에 대한 조언을 아낌없이 들으며 용기를 얻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2021.03.~10

개발 연구 및 회의 @부평아트센터 중연습실, 상상이상 연습실

매주 수요일은 부평데이! 영아극 '배 안에서'를 문화예술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발도르프교육학과 영아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했다. 매주 수요일마다 부평아트센터 중연습실과 중구 인현동의 상상이상 연습실에 모여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늘에서 땅의 세상으로 내려오는 아기들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12가지 감각을 가짜가 아닌 진짜로 체험할 수 있도록 놀이 방법과 교구를 선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의 건강을 위해 온라인 화상 회의 플랫폼으로 만나 회의를 하고, 교구 활용을 위해 직접 교구를 만들기도 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했다. 한 달에 한 회 차의 교육 과정을 완성하고 있을 때, 아기들을 만날 날짜가 정해졌다!

2021.10.

시범 교육 운영 @부평아트센터 스튜디오A

참여자 아기 및 보호자 5팀

두근두근 가슴 떨리는 10월이 되었다. 아직 마스크 착용이 익숙하지 않은 아기들을 안전하게 맞이하기 위해 교육 공간 구석구석을 닦고 쓸고 소독하며 안전한 공간을 갖추고자 했다. 보호자 손잡고 아장아장 신나게 걸어 들어오는 아기들을 보며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50분 내내 보호자 품에 안겨 있던 아기부터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교육장 곳곳을 탐색했던 아기, 가만히 앉아서 탐색을 즐기던 아기까지 한 명 한 명의 다름을 존중하며 상상이상 세 명의 예술교육가는 관계 형성에 집중했다. '시범' 교육인 만큼 5회의 교육 시간 동안 참여한 아기와 보호자에게 적합한 모델링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며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과정을 반복했다. 보호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며 '배 안에서'만의 특징을 갖추게 되었다. 발도르프교육 전문가의 보호자 교육으로 시작되어 보호자 교육으로 마무리된 '배 안에서'의 시범 교육은 아기들에게는 12가지 감각을 연극 놀이로 자극하고 보호자에게는 아기를 뱃속에 잉태한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며 아기와 교감을 나누고자 한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갔음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2021.10.~11.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부평아트센터 중연습실,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자문 허정희

시범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을 쏟아낸 후련함이 교차할 때 쯤, 더 나은 교육 운영을 위한 내부 품평회 시간을 가졌다. 5회 차의 교육 과정이 담겨 있는 영상 하나하나를 보니 아쉬운 것들이 가득했다. 예술교육가와 자문가 그리고 재단 담당자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며 양질의 영유아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역량강화에 대해서 고민하며 보완점을 찾는 시간이었다. 정규 교육까지 남은 짧은 시간 동안 최선의 방법을 찾아 최상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바삐 움직였다.

2021.11.

정규 교육 운영 @부평아트센터 스튜디오A

참여자 아기 및 보호자 4팀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낼 그 때가 드디어 다가왔다. 시범 교육과 품평회를 거쳐 한층 발전한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함께 한 시간이 축적되며 세 명의 예술교육가와 보호자 교육을 위한 특강사, 재단 담당자의 손발도 척척 맞게 되었다. 4명의 아기 천사와 함께한 정규 교육은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것을 쏟아내는 시간이었다. 어떠한 돌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았고, 네 명의 아기들의 특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개별성을 존중하며 자연스레 놀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무엇보다 보호자와 빠르게 친밀감을 형성하며 아기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었다. 1, 2회 차 때 낯선 환경에 마음을 열지 못했던 아기들은 회 차가 거듭될수록 완벽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촉감에 예민했던 아기가 양모공과 실크천을 만지기 시작했고, 모든 소리에 반응했던 아기는 소리가 나는 물건을 관찰하기도 했다. 엄마 품에 안겨 다른 이들을 관찰만 했던 아기는 4회 차가 되어서야 땅에 발을 디디며 마음껏 걸어 다녔다. 교육의 마무리를 알리는 노래가 들리면 가지고 놀던 교구를 집으로 보내주기 위해 다가왔고, 안녕~ 하고 손을 흔들었다. 아기들의 변화에 보호자와 예술교육가 모두 기쁨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그동안 많은 연구와 학습을 바탕으로 아기들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며 기다리는 연습을 한 덕분이었다.

예술교육가 후기

오연주

2019년 하반기, 베이비씨어터 '배 안에서'를 팀원들과 함께 창작하였다. 아기를 온전한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고, 함께 하는 보호자분들이 감동 받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 그런 마음을 담은 아주 고요하고 소박한 공연이었다. 고요함 속에 어떤 울림이 있는 공연이었다.

그 때만 해도 이 작품이 이렇게 쑥쑥 성장해 나가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공연으로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특히 부평구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3년이라는 연구 및 실행 기간을 가지며 베이비씨어터 '배 안에서'가 15~20개월 아기와 보호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

공연으로 아기와 보호자분들을 만날 때와는 또 다른 배움과 감동이 있었다. 다섯 번의 수업 회 차 동안 아이들이 달라지고, 보호자분들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우리 팀과 나 자신이 달라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점점 더 자유롭게 탐색하며 몰입하면서도 경계를 구분하며 놀이하였고, 친구들을 의식하며 교감해 갔다. 보호자분들은 아이들의 울타리로써 점점 더 편안하게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해 갔다. 그리고 우리 팀의 호흡도 한결 잘 맞아갔다. 돌발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고 좀 더 부드럽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무언가 더 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부터 가벼워졌고, 아이들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며 좀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내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그것에 예술적으로 응하는 데에서 오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각자 자기답게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 저 아름다운 빛이 꺼지지 않도록, 자기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아니, 적어도 방해꾼은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든다. 진정으로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진다. 이렇게 모두의 변화와 성장이 한 자리에서 일어나다니 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언제나 그렇듯, 좋은 일 뒤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함께 열심히 고민하고 실행한 동료 선생님들, 헌신적으로 교육 자문을 해 주신 발도르프 교육 전문가분들, 든든하게 이 수업의 바탕을 준비해 주신 부평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담당자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용기 내어 함께 해 주신 어머님들과 이 수업의 빛이 되어 준 아기들... 예술가가 예술가의 자리에서, 교육자가 교육자의 자리에서, 행정가가 행정가의 자리에서,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서, 아기가 아기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즐겁게 최선을 다 했던, 그래서 늘 감동적이었던 시간이었다.

오랫동안 문화예술교육가로 활동하다가 2019년 부평구문화재단에서 1인 예술가를 위한 창작 워크숍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2020년 부평구문화재단의 제안으로 베이비씨어터 '배 안에서'를 15~20개월 아기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연구하였고 드디어 2021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배 안에서'로 아기들과 어머니들을 만났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에도 부평에서 또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 해 주실 모든 분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꿈꾸는 대로

김은미

<시:작 연구소> 문화예술교육 '배 안에서'는 우리 극단 상상이상의 주 레퍼토리인 베이비씨어터 '배 안에서'로부터 나왔다. 이 극이 탄생되기까지는 우리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고, 정말 감사하고 기적같은 일들을 선물받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단지 꿈을 꾸었다. 그 꿈 역시 인천문화재단에서 예술가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생겼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꿈이 생겼고 그 꿈이 실현되었다. 우리의 꿈은 영유아들을 위한 예술콘텐츠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잘 만들고 싶었다. 그랬더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해외탐방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정말 기적같이 이탈리아에 가서 베이비씨어터의 고수들을 만났다. 그들의 극단과 작품을 체험하고 이야기 할 수 있었고, 크로아티아의 인형극 축제를 참여하여 기가 막힌 작품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어린이을 위한 인형극을 수십 년간 해온 인접국가의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는 그 이후 아주 작은 쇼케이스 <베이비씨어터 - 배 안에서>를 하게 되었고, 그 쇼케이스를 본 부평구문화재단이 우리와 함께 영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연구 과정에서 물질적인 지원과 함께 우리가 만나고 싶은 관련 분야 전문가와 워크숍 지원을 받았다. 극의 근간이 되는 발도르프교육학을 실천하는 전문가들이 우리팀의 자문으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고, 국립극단 아동청소년연구소 부소장을 지낸 그리고 부평구문화재단의 1인극 워크숍(극단 상상이상의 탄생 배경)의 리더셨던 유홍영 선생님의 진심어린 자문과 워크숍을 통해 우리의 작은 극은 비로소 잘 성장하게 되었고 (아직도 성장 과정이지만) 부평에서 시범수업 및 본 수업 5차시로 변모하여 진짜 아가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총10회 수업(시범 수업 5차시와 본 수업 5차시)을 마치고 돌아보기를 하니 우리와 함께 했던 아가들이 이 땅의 세상에서 빛처럼 자라기를 꿈꾸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겠다는 느낌을 나누고 싶어서다. 우리의 꿈이 이뤄지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땅의 세상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만난 아가들도 이 땅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멋지게 땅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이 그렇게 되게 하는 어떠한 영향력을 가진 것이 되길 꿈꾼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영유아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작은 것까지도 세 명의 배우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고쳐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그 과정 모두가 즐겁지만은 않았다. 왜냐하면 아가들이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들을 수도 없고 아가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은 답이 없는 길을 가는 것과 비슷했다. 연구과정에서도 이론서와 실천가들을 만나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했고, 교육 계획이 끝나고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배 안에서'의 교육 철학의 근간인 발도르프교육학은 아가들을 존중하고 개별성을 존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실제로 수업을 통해 만난 아가들의 눈빛과 몸짓을 관찰하기 위해 감각을 총 동원했다. 아이들은 촉각에 예민한지, 어떤 놀이와 오브제에 반응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업을 진행하기 전과 후에 치열하게 이야기하고 고치기를 반복했다.

오브제 하나에도 천연 소재, 색깔까지도 신중을 기했기에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고 모든 것이 새로운 시도가 아닐 수 없었다. 예를 들면 실제의 것을 아가들에게 제공할 때 가장 잘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발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브제를 선택할 때 심혈을 기울였다. 공을 사용할 때도 양모공을 선택했고 양모공 중에서도 스티로폼공 위에 양모솜을 입힌 것이 아닌 사람이 양모솜을 뭉쳐 만든 공들을 수업의 오브제로 제공하고 천연 실크 천을 사용하였다. 실크는 천연 동물성 소재라서 관리도 어렵고 비용도 10배 이상이지만 다른 유사한 천과 비교를 해보고 시각과 촉각 그리고 운동감각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모든 사용되는 천을 실크로 준비했다.

오브제뿐만 아니라 안전이란 이름으로 차단된 것들이 많은 환경에서 무엇을 제한하고 무엇을 자유롭게 할까에 대한 선택은 정말 늘 고단할 정도로 온 감각을 사용해서 관찰해야만 했다.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모든 과정에서 이런 선택들이 동반되어야만 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다. 그래서 아마도 연구와 끊임없는 이야기들이 필요했던 것 같다.

우리는 엄마들이 아가의 안전을 위해, 교육을 위해 아가들의 자율성을 차단하는 많은 사례를 관찰했고, 그것으로부터 아가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엄마들에게 아기랑 억지로 놀아주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놀이의 주도성을 아가들에게 제공해 탐색만으로도 아가들은 엄청난 자극과 집중력을 겸험하게 된다. 우리는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엄마들의 변화에도 놀랐으며 아이들이 엄마의 도움 없이 탐색과 놀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격했다. 그 모습은 고요함과 진지함이 동반된 귀여운 광경이다. 너무나도 귀한 아가들을 위해 귀하게 준비했고 해당 연령의 아가들에 맞는 것들을 개별성을 존중하며 알맞게 제공하려고 노력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과 엄마들이 행복해지길 원했던 것이 우리의 꿈이었고, 부평구문화재단의 '배 안에서' 교육 안에서 펼쳐지는 것들을 보며 다시 한 번 우리들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이 열심히 탐색했던 눈빛 그리고 손, 그리고 직립하고자 열심히 움직인 발걸음, 집중했던 에너지와 호흡하는 아가들의 숨소리 자체가 감동적이었다. 우리의 꿈은 이 귀한 아이들이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경험한 것이 어른이 되었을 때 저 어딘가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깊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길 꿈꾼다. 그것을 우리가 목격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마음을 주고받으며 이 프로그램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준 이슬기 담당자와의 만남 역시 우리의 꿈을 실현하게 해준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신 것에 감사를 꼭 표현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은 정말로 계속 될 것이고, 많은 아가들과의 만남을 진심으로 꿈꿔본다.

이상명

작년부터 올해까지 극단 상상이상은 부평구문화재단 지원으로 상상이상의 레퍼토리 공연 <배 안에서>를 영유아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작 연구소 - 배 안에서>로 발전시켰다. 시연, 시범 프로그램을 거쳐 본 프로그램까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임에도 <시:작 연구소>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배 안에서> 공연을 어떻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을지 연구를 시작하며 우리는 공연을 처음 만들 때 바탕이 되어준 '발도르프교육학'을 다시 공부하였다. 12감각, 음악, 미술, 영아 발달단계 특징과 그에 맞는 놀잇감 등. 그 과정에서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러한 배움이 모아지고 녹여져서 <시:작 연구소 - 배 안에서>를 5회차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었다.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시:작 연구소 - 배 안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발도르프 교육학을 따른 '민감한 재료 선정' 이었다고 생각한다.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을 경험한지 15~20개월이 된 아이들. 아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해 천연 소재 오브제-양모, 실크 천, 천연물감을 사용한 놀잇감 등-를 구입했다. 그래서인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나무로 된 색 조약돌 입에 댈 때 걱정되지 않았다. 실크천으로 얼굴을 덮어줄 때엔 아이들이 실크의 촉감을 더 느끼길 바랐다. 안전한 재료들에서 오는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보호자-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배 안에서>는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 모두 보호자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공연과 다르게 교육 프로그램은 5회 차를 만나다보니 라포도 형성되고 매회 차의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시범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 프로그램은 모든 보호자들이 다 경험해 봐야한다"고 감동스러워 하시며 말씀하셨던 선율이 어머니의 말씀이 귀에 아직 생생하게 들린다.

영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계획·진행하면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참 보람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준 부평구문화재단 관계자분들, 수고한 극단 상상이상 사람들 그리고 열정적인 피드백으로 해주신 두 분의 자문 선생님들과 프로그램에 참여해준 보호자-아이에게 감사하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보호자-아이들이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02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은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은 10년 이상 운영하며 대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한 <어린이연극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10년 차를 맞이하면서 내부적으로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고 올해 새로 단장한 모습으로 친구들을 만났다.

이번 <어린이연극학교>는 과정 중심의 연극놀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어린이들의 타고난 놀이성에 기반을 두고 구조화된 놀이와 드라마를 통해 어린이들의 자발적인 연극활동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 1~2학년, 3~4학년으로 대상을 세분화하여 보다 세밀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상반기 <느낌의 반딧불>

운영기간 2021.06.19.~07.31 매주 토요일 09:30~12:30 (총7회)
운영장소 부평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
운영대상 초등 1~2학년 12명
참가비 100,000원
예술교육가 극단 목요일오후한시 강경선(강갱), 김인혜(마뇨), 이현수(상자)

하반기 <마음조각>

운영기간 2021.10.23.~12.04 매주 토요일 09:30~12:30
(총6회, 코로나19로 1회 휴강)
운영장소 부평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
운영대상 초등 3~4학년 12명
참가비 100,000원
예술교육가 극단 목요일 오후 한 시 강경선(강갱), 김인혜(마뇨), 이현수(상자) 그리고 사미숙(귤)

프로그램 세부내용

상반기 <느낌의 반딧불>

"감각과 감정으로의 탐험"을 담은 과정 드라마이다. 아이들은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감각을 되찾아주고 폭발해 버린 분노의 행성을 구하는 등의 활약을 통해 자신의 감각을 깨우고 마음 속 감정을 꺼내본다. 느낌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상상의 시간을 갖는다.

교육주제 감각과 감정 들여다보기

교육목표
- 감각을 섬세하게 느끼고 이를 다양한 예술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기
- 감정을 언어화하기, 추상화하기, 연극적으로 표현하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공감하기
- 모든 감각과 감정은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고 이러한 감각과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행동할지 스스로 판단, 결정하도록 하기

단계	회차	주제 / 키워드	제목 / 활동내용
탐험대 모집	1	함께할 사람들 그리고 공간과 친해지기	**여행 준비 - 탐험대원 모여라** 1. 탐험 대원 되기 2. 탐험 수첩, 탐험 대원 알기 3. 공간 둘러보고 규칙 공유하기
감각 나라 탐험	2	이야기 속 인물을 통해 감각 읽기	**감각 나라 1 - 잃어버린 느낌을 찾아서** 1. 연극 속으로 2. 눈빛 나라 - 소리 나라 - 말의 나라 3. 감각 나라 탐험 수첩
	3	느낌을 그림과 몸으로 표현하기	**감각 나라 2 - 느낌을 마음껏 표현하자** 1. 느끼는 대로 2. 잃어버린 느낌책 만들기 3. 움직이는 느낌책 만들기
	4	마을 산책 하며 감각 깨우기	**감각 나라 3 - 느낌을 활짝 열자** 1. 마을 산책 준비 2. 마을 산책 : 빛깔 찾기, 소리 듣기, 얼굴 만들기 3. 공동체 놀이
감정행성 탐험	5	슬픔을 공감하고 위로하기	**감정 행성 1 - 눈물 주르륵 행성** 1. 눈물 방울 표 '슬픔의 기억' 2. 모둠별로 환상의 연극 만들기 3. 눈물 주르륵 행성에서 환상의 연극 하기
	6	분노의 감정 들여다보기	**감정 행성 2 - 붉으락 푸르락 행성** 1. 붉으락과 푸르락의 모집 광고 2. 각 모둠 행성 꾸미고 탐험하기 3. 화를 푸는 나만의 방법 공유하기
	7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	**감정 행성 3 - 함께 떠나는 여행, 외로움의 별** 1. 가족과 함께 하는 워크숍 : 공동체 놀이 2. 연극 속으로 : 외로움 이야기와 장면 3. 영상 관람과 수료증 수여

운영과정

이번 상반기 어린이연극학교는 작년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고 처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기존에 진행하던 방식을 전면 개편했기 때문에 참여자 모집에 대한 걱정이 조금 앞서기는 했다. 이전에는 초등 1~6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부평아트센터 무대에 올라가 공연실연까지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대상을 1~2학년, 3~4학년으로 세분화했고 회차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연극학교의 하이라이트였던 공연실연의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기대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다. 하지만 10년 간 진행한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판단했고,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한 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컸다.

참여자 모집이 시작되고 우려와 달리 5분 만에 모집이 완료되고 대기자까지 모두 마감되었다.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지만 어린이연극학교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신청해준 참여자들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 강사들과 함께 더욱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 같다.

마스크를 쓰고 만났지만 <느낌의 반딧불>에 참여한 1~2학년은 코로나19로 학교에 등교한 날이 많지 않고 학교에서 친구와의 만남도 적었기에 대면으로 만나 활동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들이 회차를 거듭하며 점점 프로그램에 푹 빠져들고 서로 간의 관계도 형성될 때쯤,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다. 4단계여도 재단의 경우에는 여전히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비대면 전환에 대해서도 고민했지만 참여자 학부모나 강사진, 실무진 모두 본 프로그램의 특성상 대면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새로운 진행 방식을 고민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한 방식은 참여자들을 3그룹으로 나눠 각각 개별 공간에서 1명의 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1명의 강사가 평균 3~4명의 참여자들을 만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매주 그룹을 새로 구성해서 최대한 많은 친구들이 서로를 만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매 회차 진행한 학무보 대상 브리핑은 서면(재단 홈페이지 게시판 활용)으로 대체했다. 이런 방식은 여러모로 강사나 실무진의 준비와 노력이 더 많이 필요했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여자들과 만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7회차라는 과정을 완성해나가기 위해 참여한 친구들, 강사들, 학부모, 실무진 모두가 함께 협력하며 걸어온 그 자체가 매우 의미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세부내용

하반기 <마음조각>

감정에 대한 한 편의 이야기를 연극적으로 경험하는 과정 드라마이다. 아이들은 탐험대가 되어 잃어버린 마음조각을 되찾아 마음조각 퍼즐을 맞춰 나간다. 탐험을 하면서 아이들은 감정을 보는 체험을 하게 된다.

교육주제 타인의 감정을 통해 나의 감정 들여다보기

교육목표
- 극 속의 인물과 비언어적인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보는 힘 기르기
- 나의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과 교감하면서 공감의 경험하기
- 아이들의 생각이 이야기에 반영됨으로써 상상력 자극하기

단계	회차	주제 / 키워드	제목 / 활동내용
탐험대 모집	1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이야기 속으로!** 1. 프로그램 안내 및 공지 사항 2. 공동체 놀이 3. 수첩 꾸미기 & 서로 알기 4. 공간 탐험과 규칙 공유하기
마음 조각을 찾아서	2	마음 헤아리기	**탐험대 결성 - 부서진 마음 조각을 찾아서** 1. 주어진 단서로 인물을 상상하고 구축하기 2. 인물과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으로 대화하기 3. 인물의 부서진 마음 조각을 찾는 탐험대 결성
	3	걱정과 환기	**마음 조각 1 - 걱정 많은 철학자** 1. 걱정을 부채바람으로 날려 보내는 철학자 2. 아이들이 각자의 걱정을 말하며 대화 나눔 3. 걱정을 날려버리는 다른 방법 찾고 함께 해보기
	4	기억과 감정	**마음 조각 2 - 오색빛깔 기억 수집가** 1. 소라 모양, 조개 모양 따라 기억 들려주기 2. 기억을 추상화로 표현하고 기억의 공간 만들기 3. 공간을 관람하며 기억 읽어주고 인터뷰하기
	5	감정과 상상	**마음 조각 3 - 외로운 배우** 1. 외로운 배우의 가면 연기 2. 아이들이 쓰는 감정에 대한 짧은 희곡 3. 희곡으로 연기를 연습해서 보여주기
마음 조각 완성	6	자연스러운 감정	**마음 조각 완성 - 바쁜 사람이 버린 마음 조각들** 1. 바쁜 사람과의 만남, 나머지 마음 조각을 찾아라! 2. 마음 조각 완성 - 하늘로 되돌아가는 길 3. 영상으로 만든 '이야기책' 보며 작별 인사

운영과정

하반기에는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마음조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진행한 <느낌의 반딧불>과 구성은 비슷하지만 대상에 맞춰 프로그램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하고 콘텐츠를 보완했다. 상대적으로 초등 저학년에 비해 3~4학년은 모집이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정원에 맞춰 모두 자리를 채우고 대기자도 많았다.

프로그램을 시작하자마자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이는 참여하는 친구들의 표정이나 몸짓, 반응으로 바로 확인되는 부분들이고, 함께 오는 학부모님의 반응을 봐도 알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2회차를 진행하자마자 5~6학년 프로그램 개설 문의가 들어왔다. 이렇게 대상을 세분화해서 진행하면 언제나 들어오는 문의이다. 기관 담당자로 사실 5~6학년 대상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모집의 어려움부터 콘텐츠 내용 구성까지 많은 도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문의가 들어오니 어려움을 딛고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솟는다.

상반기에 한 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는 않을까 하고 마음을 놓을 때 쯤, 어김없이 어려움은 찾아온다. 무슨 일이든 쉬이 지나가는 법이 없다.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님 한 분이 코로나19 확진이 되었다. 다행히 프로그램을 진행한 날과 밀접접촉 기간이 겹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담당자와 진행강사, 참여자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선제적으로 받고 프로그램을 휴강했다. 밀접접촉 기간이 아니라 모두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고 분주히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방법을 찾았다. 다행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참여강사님들의 노련한 대응으로 금세 새로운 선생님이 오셔서 남은 회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기존 강사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분들이라 무리 없이 수업진행이 가능했다. 진행 중 조금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사히 프로그램을 마치고 서로를 많이 아쉬워하며 헤어졌다. 다음을 또 기약하며.

예술교육가 후기

이현수

상·하반기 각각 두 개의 과정드라마형 연극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상반기에는 '느낌의 반딧불'로 8, 9세의 아이들을 만났고, 하반기에는 '마음조각'으로 10, 11세의 아이들을 만났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모여서 하던 활동을 세 그룹으로 나눠 하기도 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한 주 쉬어가기도 했다. 이처럼 언제 분리되고 중단될지 모른다는 걱정 속에 모든 차시를 무탈하게 마쳤다.

'걱정 많은 철학자' 역할로 분(扮)하여 등장한 어느 날. 이 엉뚱한 철학자는 아이들에게 걱정거리를 적어달라고 요청한다. 한 아이가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걱정'이라며 장난스럽게 음식 이름을 적어 내려간다. 뿌링클, 후라이드, 양념, 왕뚜껑... 그러다 친구들이 적은 '영어가 싫어요', '날씨가 추워서 밖에서 못 놀아 걱정이에요', '강아지가 갖고 싶어요' 등의 걱정거리를 보고 이내 자신의 걱정이 떠올랐는지 슬픈 표정이 된다. 철학자는 무슨 걱정인지 묻는다. 친구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던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자 모든 친구들은 진지한 얼굴로 친구를 살핀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철학자는 말한다.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그런데 가끔 재밌는 일도 있어. 미소를 짓는 순간도 꽤 있지." 뒤돌아 생각하면 '이게 울고 있는 10살 아이에게 할 말인가' 싶어 실소가 나오지만 그 순간은 철학자로 변하였기에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던 것 같다.

아이들의 걱정을 철학자가 읽어주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학교 폭력을 당할까 걱정, 좋아하는 게임을 마음껏 못해서 걱정, 친구 사이가 멀어져 걱정,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원을 빡세게 다녀서 걱정, 아빠 유전자로 탈모가 올까 봐 걱정, 코로나가 언제 사라질지 몰라 걱정, 할머니가 그만 먹으라고 해서 걱정, 아빠랑 못 놀아서 걱정, 세상 사람들이 왜 모두 행복하지 않아서 걱정, 스트레스가 많은 자신이 화를 잘 내서 걱정...' 한 아이의 걱정을 읽을 때마다 이와 비슷한 걱정이 있는지 물으면 한 두 명이 손을 들고 자신의 생각을 들려준다. 이렇게 걱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표정은 한결 가벼워진다.

걱정을 안고 있어도 걱정에 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얼까? 그건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의 모습에서 알 수 있다. 철학자가 들고 있는 부채, 걱정을 날려버린다는 부채 바람처럼 잠시 바람을 쐬듯 환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걱정의 무게를 덜고 걱정과 거리를 둔다. 울던 그 아이가 나지막이 말한다. "이제 괜찮아졌어요. 오늘 여기 오길 잘 한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의 걱정을 가만히 듣고만 있던, 평소에도 말이 없는 한 아이가 색종이를 작은 네모 모양으로 잘라 종이마다 다른 그림을 그려 친구들 한명 한명에게 나눠준다. 작은 손바닥들이 두 손을 모아 종이를 받는다. '우리 어린이들도 꽤나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지. 힘내자!' 라는 메시지를 담은 듯하다. 나는 이 종이가 걱정을 날리는 부적처럼 느껴져 이마에 붙여본다. 아주 잘 붙는다. 몇몇 아이들이 따라서 이마에 붙인다. 어떤 아이는 이마에서 자꾸 떨어지는 것을 붙이려 애쓴다.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김인혜

꼬박 1년을 기다린 뒤에야 어린이연극학교가 재개되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몇 차례 연기되었다가 아쉽게 취소되고, 올해는 여전히 변수가 많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작년에 계획한 연극 만들기가 아닌 과정드라마 형식으로 방향을 달리해 진행하였다. 상반기에는 초 1~2학년 대상의 <느낌의 반딧불> (7차시 프로그램)을, 하반기에는 초 3~4학년 대상의 <마음조각>(6차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24명의 아이들과 만났다. 두 프로그램 모두 감각과 감정을 탐험하는 과정드라마로서, 아이들은 이야기 속에서 연극적 인물을 만나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꺼내보며 놀이로서의 연극이 자신의 삶과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연극 매일 하고 싶지만 참고 있어요."

아이만큼이나 사랑스럽고 개성 넘치는 글씨체로 꾹꾹 눌러쓴 가은이의 손편지를 보고선 웃음이 터졌다. 참을 게 따로 있지! 어찌 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하기 힘든 예술교육 형태가 연극일텐데, 그렇기에 더더욱 몸으로 뛰어놀고 상상을 펼치고 감정을 표현하고 무엇보다 공동체로서 함께 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은 당연할테다.

<마음조각> 마지막 차시.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일에만 몰두하는 바쁜 사람에게 아이들은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알려준다. 좋아하는 음식, 인형, 친구, 가족, 나 자신, 성산일출봉, 반려동물 등등.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건 그 이유 때문이다. 처음 가진 인형이기에, 오해를 풀고 다시 사이가 좋아진 친구라서,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든 곳이기에, 돌보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생명이니까, 소중한 것에는 따로 이유가 없다. 라는 이유까지. 아이들은 어째서 벌써 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걸까.

우리가 함께 한 시간 역시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건 그나마 이 어려운 시대를 통해 얻게 된 교훈이 아닐까 싶다. 이 소중한 시간들이 아이들에게 일상을 살아가는 작은 힘이 된다면 (나에게는 매우 그렇다!), 추억의 한 조각으로 남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언젠가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눈, 코, 입, 뺨으로 한껏 표정을 지으며 몸을 맞대고 연극을 만들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강경선

봄여름에 8, 9세 어린이와 7번 만나는 동안 <느낌의 반딧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즌에는 10, 11세 어린이와 6차시에 걸친 <마음조각>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를 돌아보면 나에게 어린이연극학교란 쉼터이자 안정감이었다. 이때까지 예술강사로 아이들을 만나오면 가끔 내가 만나도 만나지 않고 너무 과하게 힘만 쓰거나 프로그램 활동 진행을 완수하는데 급급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린이연극학교는 왠지 모르게 모든 게 편하고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이 보였다. 토요일 아침에 아이 손잡고 방문하는 보호자,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작년부터 애쓴 담당자, 극단 멤버로 척하면 척 합을 맞춰온 동료강사들, 센터에 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보슬보슬한 잔디들.

<느낌의 반딧불>을 맨 처음 시작할 때 큰 마룻바닥 공간에 참여 어린이와 보호자분들이 하나 둘 모였다. 모두 모일 동안 클래식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았다. 품에 폭 안겨 있던 아이들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음악을 느끼며 엄마랑 사뿐사뿐 춤을 추기도 하고, 귓속말을 하며 까르륵 웃고, 뛰어다니는데 평온했다. 위에 창문에서 빛이 바닥을 비췄던 기억이 아직까지 강렬하게 남아 있다. 어느새 나도 춤을 추고 있었다. 나 스스로가 느낌에 솔직해지고 어린이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목적이 우선이 아니라 존재와 존재로 편안하게 마주하는 순간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느낌의 반딧불>에서 8살 가은이가 쓴 시가 생각난다.

고양이 - 진가은

고양이는 귀여워
맨날 애교를 부리니까
고양이는 입이 시옷자라서 귀여워
밤이 되면 눈이 동글동글

입이 시옷자였구나! 정말이네! 동료인 현수가 우리집 고양이 사진과 가은이 시를 얹어서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 (현재까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있다)

<마음조각>은 2차시에 프쉬케라는 인물을 만나고 그 인물이 던져준 힌트를 모아 마음조각을 찾는 구조이다. 아이들은 2차시에 만난 프쉬케를 6차시가 되어도 극 속 이야기에 계속 연결시키고 언급한다. 이유가 뭘까? 6주간 허구의 세계를 창조하고 상상하며 다음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하며 연극을 넘나들며 잘 놀았다.

마지막에 프쉬케에게 편지를 썼는데 "프쉬케, 나는 마음수사대 중 한 명이야. 너가 보내준 영상편지 봤어. 너를 못봐서 속상했어." 라고 적기도 한다. 내가 프쉬케 역할을 맡았고 아이들과 악기로 대화를 했을 때, 아이들의 눈빛과 마음이 전달되는 순간이 있다.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연극학교를 통해 재미있게 놀아서 기분이 좋고 프쉬케의 마음조각 이야기를 만들어나갔던 마음이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남아있길 바란다.

2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01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부평구문화재단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은 관내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선보인 <교육연극 : 슬기로운 학교생활>은 겉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청소년의 공통 문제와 개인의 고민을 유쾌하고 안전한 '연극'으로 경험하는 참여형 연극이다. 올해는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의 '부평마을연계 문화교육' 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5개의 학교를 찾아가 초등6학년부터 중등3학년 학생들을 만났고, 부평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교육연극은 연극주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워크숍부터 공연까지 교사나 어른의 개입 없이 배우와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마주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갈등에 대한 최선의 답을 찾아간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직접 배우가 되어 연기도 하고, 연출가가 되어 연극 속 한 장면을 새롭게 구성하며 생각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는 과정을 배운다.

<교육연극 : 슬기로운 학교생활>

운영기간 2021.05.~12.

운영대상 관내 초·중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예술교육가 교육연극연구소 프락시스(원성원, 김현정, 장남희, 이다희, 육소영, 원주영, 신상용, 이순원, 오하나)

협력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프로그램 세부운영

구분	활동	내용
워크숍	놀이	예술교육가와 학생들의 첫 만남, 어색함을 깨뜨리고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친밀감 형성 놀이
	상황극	상황극을 관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참여연극 이해하기
	탐색	상황극을 통해 파악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탐색 활동 나의 생각대로 이야기를 바꾸고 토론하며 문제 해결 방법 찾기
교육연극	관람	워크숍 탐색 과정에서 나온 상황과 대사로 이루어진 연극 관람
	참여	연극에 대해 생각해보고 배우, 연출가, 작가가 되어 직접 무대에 올라 연극 이야기를 바꾸어 참여하기

운영과정

<교육연극 : 슬기로운 학교생활>은 청소년이 주인공이 되어 어른의 개입 전혀 없이 또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이다. 청소년이 교육연극을 이해하고 연극을 만들기 위한 상황과 대사를 직접 생각해보며 시연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교 수업이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되며, 각 학교와 일정을 조율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지난 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았기에 이번에는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코로나19 대응과 학사 일정을 조율하며 날짜를 확정하고 청소년들을 한 명 한 명 만날 때의 설렘과 희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프로그램 진행일정]

구분	학년	워크숍		공연		
		일정	참여인원	일정	참여인원	장소
대정초등학교	6학년	6.18(금)	2개 학급	11.4(목)	134명	비대면
상정초등학교	6학년	5.21(금)	1개 학급	6.11(금)	52명	상정초
동암중학교	2 - 3학년	11.16(화)	2개 학급	12.21(화)	155명	비대면
부원여자중학교	1, 3학년	6.15(수)	1개 학급	12.22(수)	650명	비대면
상정중학교	3학년	9.6(월)	2개 학급	11.23(화)	107명	달누리극장
부평구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9.2(목) 9.9(목)	8명	9.28(화)	10명	달누리극장

워크숍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학교로 찾아가 진행하였고, 공연 관람의 경우 학교의 운영 방침을 고려하여 대면 관람과 비대면 관람으로 병행 운영하였다.

이번 교육연극은 초등 6학년부터 20대까지 약 1108명의 청소년들과 함께하며 각기 다른 생각과 이야기, 고민들을 들을 수 있었다. 많은 청소년들이 '친구관계'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또, '친구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에는 망설이며 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참여 예술교육가와 함께 상황과 관련된 연극적 장치를 만들어 안전하게 표현하도록 이끌었다.

[영상보기]

아직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몇몇의 청소년은 교육을 마치고 예술교육가에게 '내뱉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아직은 내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표현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

묻기도 했다. '교육연극'이 단순한 예술체험의 기회뿐 아니라 질풍노도의 시기에 들어선 청소년들의 어지러운 마음을 보듬어주고, 생각의 폭을 넓히는 보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며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다. 문화예술교육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하늘 아래 완벽한 것은 없다고 공연 관람에서는 아쉬움이 많았다. 공연에 투입되는 6명의 예술교육가와 머리를 맞대고 최상의 환경에서 청소년과 소통하며 진행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연습했지만, 모든 것이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라는 말을 수십 번 되뇌었다. 밀폐된 공간에서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청소년이 무대 위에서 상황극을 선보이는 방식에서 배우들이 청소년의 아바타가 되어 대사와 감정을 대신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청소년들 덕분에 그들의 생각과 유행하는 단어들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감정을 해소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는다.

[참여자 후기]

- No! 싫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내면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었다
- 친구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다
- 수업 시간에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재밌었다
- 무엇이 옳고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 배우들이 너무 연기를 잘해서 더 재밌었다

청소년과 성인의 생각은 다르지 않다. 다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폭, 경험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교육연극 : 슬기로운 학교생활>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이 경험을 양분으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생각을 건강하게 표현하길 바란다.

예술교육가 후기

아이들의 드라마가 해피엔딩이 되길 바라며

김현정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전면적 삶의 변화뿐 아니라 학교생활 안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학교는 등교를 멈추었고, 마스크로 인하여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 년을 마무리 하는 학생들도 있었죠. 처음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가장 염려 되었던 것은 일주일을 온전히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직 친해지기 전에 관계의 '문제'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염려와는 달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더 깊이 고민해 주었습니다.

2021년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와 달리 코로나는 점점 더 심해지고,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 폭력 혹은 학교 관계 안에서의 문제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더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진화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매체로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학교의 법망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들으면서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 주어야 하나 우리가 할 몫은 무엇일까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들어가 진행을 하던 어느 날 한 친구가 과정 안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해결해 주지 못해요. 어른들이 더 문제만 키울 때도 있어요."
"그냥 냅두면 우리가 더 잘해요! "
아이들도 웃고 저도 웃으며 맞아! 라고 맞장구를 쳤지만 뒷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포럼연극을 진행 할 때 해결의 키로 가장 마지막에 찾는 것이 어른입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학교 안에서 생활 하면서 그들이(어른) 개입하면 일이 더 커졌던 경험들로 인하여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이 튀어 나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어른들이 모두 손 놓고 아이들을 기다릴 수 만은 또 없습니다.
어쩌면 <슬기로운 학교생활>은 아이들이 해야 할 일 보다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을 던진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저는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하며 가장 많이 느낀 것이 바로 '바라보기'였습니다.
아이들을 우선 제대로 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근본적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주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부평구문화재단의 이 기획은 참으로 감사한 바라보기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의 주제로 극을 구성하고 매번 그 학교에서 워크숍을 하며 아이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덧붙여 새롭게 구성하고, 참여 형태의 연극을 하며 아이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이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아이들을 '바라보기'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혹여 습관적으로 쓰고 들어갔던 저의 고루한 안경을 벗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도와주곤 하였습니다.
각자의 교실 안에서 시작한 아이들의 단단함과 이야기가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 서로 다른 학교가 모이고, 학부모 그리고 다른 어른들에게도 저와 같은 '바라보기'의 경험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애써준 원성원 대표님과 강사님들 그리고 배우 선생님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신 부평구문화재단과 항상 뒤에서 너무 많은 도움과 힘이 되어 주신 이슬기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하루 빨리 아이들이 직접 만든 해피엔딩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꼭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02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2021년 부평구문화재단의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은 부평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협력하여 운영하였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또래와의 교류 기회가 줄어든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고립에서 벗어나 타인과 공감하며 내면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다.

손쉽게 접할 수 있지만 '잘' 다루지는 못했던 '사진'이라는 장르를 선택해 직업 체험뿐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주제로 교육이 운영되었다. 스마트폰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일회용 필름 카메라, 폴라로이드 카메라 등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를 접하며 각 카메라의 작동법을 익히고 각 카메라만의 고유한 느낌을 살려 나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 마음 스튜디오>

운영기간 2021.11.11.~12.09. 매주 금요일 14:30~16:30 (총4회)

운영장소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운영대상 관내 학교 밖 청소년 8명

예술교육가 이승주, 신수빈

교육주제 사진으로 '나' 그리고 세상과 마주하기

교육목표
- 나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기
- 사진으로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기
- 사진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표현력 향상하기

회차	주제	내용
1	사진과 만나기	• 나를 소개하기 • 빛으로 그리는 그림 사진 • 사진으로 담아내기 : 폴라로이드 카메라, 일회용 필름 카메라 • 내 주변의 사소한 것 찍어보기
2	나의 주변을 바라보고 채집하기	• 새롭게 의미 부여하기 • 나만의 시각, 기준으로 수집하기 • 나의 흔적 촬영하기
3	나를 살펴보기	• '나'에 대해 생각하기 • 나의 모습을 사진인형으로 만들고 촬영하기 • 나를 스스로 기록해보기
4	나를 구성하는 것	• 입체 사진 꼴라주 만들기 • 나의 사진을 중심으로 레이어 쌓기 • 필름 카메라 사진 함께 보기

운영과정

<내 마음 스튜디오>는 올해 재단에서 진행한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협의체' 구성을 위해 만난 부평구청소년지원센터 담당자와의 대화로 시작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양질의 문화예술 체험에 갈증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지난 7월, 센터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가장 관심 있고 원하는 문화예술 장르를 파악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평소 접근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문화예술을 체험하며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했다. '사진'이라는 장르는 나를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매개체로 아주 적합했다.

2021년을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달랐다. 태어날 때부터 미디어 매체를 경험한 세대답게 다양한 툴을 사용하며 작은 렌즈 안에 큰 세상을 담아냈다. 그리고 기존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과는 달리 교육에 참여하는 자세 또한 아주 진지하고 조심스러웠다. 그래서인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들과 활동들이 쏟아져 나왔다.

<내 마음 스튜디오>는 바늘구멍사진기부터 스마트폰, 디지털 사진기(일명 똑딱이 카메라), 일회용 필름 사진기, 폴라로이드까지 다양한 사진기를 접하며 렌즈로 세상을 바라본다. 있는 그대로를 카메라에 담는 것이 아닌 나만의 시각, 나만의 기준으로 사물을 수집한다. '나만의'라는 정의를 내리는데 꽤나 오랜 시간 고민을 했다. 그 고민들은 동그라미에 담긴 이야기, 모서리 수집, 창문을 통해 보는 무언가, 빨간색 등의 결과물로 탄생했고 한 장 씩 나만의 포토에세이를 완성했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나의 흔적을 남기고, 나를 구성하는 것들을 쌓아보는 과정을 겪으면서 사진에 점점 '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진 한 장만 보고도 누가 담은 세상인지 확연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사진기를 처음 접하며 낯설어했던 청소년들이 점차 사진기에 익숙해지면서 셔터를 누르기 전 무엇을 담을까 고민하던 시간이 짧아지게 되었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나의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자연스레 렌즈 속에 담게 된 것이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길 바랐던 이번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어 매우 뿌듯한 순간이었다.

함께 했던 모든 청소년들에게 2021년 11월 부평아트센터에서 사진 예술을 경험했던 추억이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위로와 회복의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예술교육가 후기

이승주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진행했던 <내 마음 스튜디오> 수업을 청소년 참여자들과 즐겁게 진행하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4회 차라는 길지 않은 수업이었지만 그 사이 참여자들 그리고 진행 기관과도 유대감을 느끼며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진행해보지 못했던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수업은 긴장을 유발합니다. 이 긴장은 설렘과 두려움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데요. 이번 수업을 시작할 때에도 두 가지 감정을 모두 느꼈습니다. 처음 만나는 참여자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나의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첫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걱정은 이내 사라졌습니다. 참여자들 모두 유연하게 사진을 받아들이려고 했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는 수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 부족함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진행했던 신수빈 선생님 또한 참여자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하고 동기부여를 하여 즐겁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에서는 '사진을 자신의 언어이자 도구로서 마주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사진과 만나기-사진으로 주변 바라보기-사진으로 흔적 남기기-사진으로 나를 이야기하기 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4회 차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진행을 하였기에 조금은 여유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 시간 동안 사진과 관련한 여러 경험을 해보길 바라는 마음에 다양한 내용을 함께하고자 하였습니다. 참여자들 모두 함께하는 시간 동안 잘 참여를 해주었으며, 결과물인 아카이브북과 레이어북도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술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가르친다라는 것보다는 함께 예술 활동을 하며 새롭게 바라보고 표현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함께하는 예술 활동이 잘 반영되고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결과물 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번 수업은 저에게도 앞으로의 방향성과 진행 방식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참여자들 그리고 수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 도와주신 기관 관계자들, 함께 수업을 진행했던 신수빈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빈

"예술 별 거 없네~"

수업 중 Erwin Wurm의 작품인 1 minute sculpture 형식을 직접 따라 해 보며 가장 많이 들린 말이다. 쭈뼛쭈뼛하던 움직임은 자신의 키보다 높은 조형물을 만드느라 어느새 사라졌고,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들고서 자신이 만든 조형물을 촬영했다. 강의실의 평범했던 의자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사라질 조형물이 되는 경험은 '사진'이 주는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셔터를 누르지 않으면 이 순간은 없어지는 것이 바로 그 경험이다.

아무것도 없을 것만 같던 강의 공간도 유심히 바라보다 보면 나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 수업을 통해 가장 먼저 알게 되었을 것 같다. 일상생활 속 흔하게 봐오던 것들에서 독특한 특징을 찾아내고, 더 나아가 나만의 기호로 읽어낸 후 한 장의 이미지로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사진예술'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자 강점이다.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를 사용해 보면서, '사진'이라는 것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수업 내내 가져왔다. 흔하게 경험하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디지털카메라, 한 컷을 찍으면 물성을 가진 사진으로 바로 인화되는 폴라로이드 카메라, 그리고 한 컷을 찍으면 바로 확인할 수 없는 필름 카메라. '사진'이라는 같은 방식이자 형식이지만, 촬영자인 학생들에게 각 카메라가 가져다주는 느낌은 달랐을 것이다. 학생들은 3주 차 즈음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카메라의 종류를 골라 사용했다. 그런 후 인화지, 폴라로이드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진들을 자유롭게 종이에 붙이며 노트의 두께를 늘려갔다.

이 수업은 말로써 결정되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과 생각들을 시각적 언어로 표현해내는 수업이었다. 학생들은 사진뿐만 아니라 글, 오브제 등을 이용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자신과 이미지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본인만 아는 은유들을 글이 아닌 이미지로 마음껏 늘어놓을 수 있었다. 문법이 존재하는 글과 달리 그 어떤 규칙도 제한도 없는 시각언어를 사용해 보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말하지 않고도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어떤 감정 상태인지,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는 물을 필요도, 말할 필요도 없다.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것을 옮겨 카메라에 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한 행위가 모든 사진예술의 시작점이다.

3

시민 문화예술교육 확대

01
일상문화예술교육

일상문화예술교육은 청년,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성인을 대상층으로 하는 사업이다. 시민 문화예술교육 확대라는 전략 속에 지역주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쉽게 문화예술교육을 다양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했다. 부평과 B급에서 이름을 따서 B-Class(삐-클라스)라는 사업명을 만들었다.

"부평에서 즐기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만들고자 했다. 무언가를 배우고 경험하고 싶은데, 이런 것을 배우려면 서울에 가야 한다고 한다. 왜 무언가를 배우며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경험할 수 없을까?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를 충족시킬 수 없을까? 부평의 직장인들, 부평의 지역주민들이 부평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영역을 기존 예술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확대하여 지금 시대의 다양한 이슈와 관심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했다.

삐-클라스

<지금 프로젝트 : 소중한 현재, 소중한 선물>

운영기간 2021.06.03.~24. 매주 목요일 10:00~12:00 (총4회차)
운영대상 20대 이상 성인 누구나
교육장소 부평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
참여강사 물나무 사진학교 여은수, 이상윤
참가비 20,000원

<나의 일상, 나의 이야기>

운영기간 2021.07.01.~22. 매주 목요일 19:30~21:30 (총4회차)
운영대상 20대 이상 성인 누구나
교육장소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 비대면 줌
참여강사 최하나 작가
참가비 20,000원

<가배 플렉스>

운영기간 2021.10.07.~28. 매주 목요일 10:00~12:00 (총4회차)
운영대상 20대 이상 성인 누구나
참여강사 엘카페딸 강인규, 전서연, 이성근
참가비 20,000원

<드로잉의 맛>

운영기간 2021.11.04.~25. 매주 목요일 19:30~21:30 (총4회차)
운영대상 20대 이상 성인 누구나
참여강사 김효찬 작가
참가비 20,000원

6월 삐-클라스

<지금 프로젝트 : 소중한 현재, 소중한 선물>

코로나19로 일상이 변화된 지금 이 시간, 사진과 영상을 통한 기록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다시 바라보는 프로그램이다. 지금 이 시간,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항상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랑과 행복이란 에너지를 찾아 기억 속에 담아보는 시간이다. 빛이 바뀌어 그림이 그려지는 옛 방식의 사진으로 지금의 모습을 다시금 빚어보며 우리의 오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기간 2021.06.03.~24. 매주 목요일 10:00~12:00 (총4회차)
운영대상 20대 이상 성인 14명
교육장소 부평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
참여강사 물나무 사진학교 여은수, 이상윤

교육내용

- 코로나19로 일상이 변화된 지금, 사진과 영상을 통한 기록으로 우리의 일상을 다시 바라보는 프로그램
- 빛이 바뀌어 그림이 그려지는 옛 방식의 사진으로 지금의 모습을 다시금 빚어보는 시간

회차	주제 / 키워드	제목 / 활동내용
1	다시 찾는 일상	**필름 카메라** 일회용카메라로 일상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변의 에너지를 담아본다.
2	빛, 시간, 기록	**디지큐라** 디지큐라 조립 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기 ⇨ 사진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이해하기
3	빛으로 그려보는 이야기	**시아노타입(cyanotype) 엽서** 엽서참여자가 사진을 가져와 시아노타입 엽서를 제작하고, 그 때의 마음을 생각하며 편지를 써본다.
4	지금의 기억	**1회차 촬영한 필름에 담긴 사진의 의미** 서로의 일상 사진을 공유하며, 소중한 시간의 의미를 나누어 본다.
	종료	참여자 작품 액자 제작 및 수령

운영과정

6월 삐-클라스는 <사진>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단순 사진촬영 기술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을 운영하고 싶지는 않았다. '사진'을 매개로 나의 삶, 일상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많은 사진교육이 있지만 부평구문화재단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상이 많이 무너지고 지친 상황 속에서 '사진'을 통해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평일 낮 시간대로 참여자 대부분이 주부층이었다. 육아와 집안일로 어느새 나를 돌아보기 힘든 그들에게 많은 위로가 된 시간이었던 것 같다. 또한 부평구문화재단의 부평아트센터, 부평생활문화센터라는 공간이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 방문했던 곳이었는데 그들 또한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생기기도 했다.

[참여자 후기]

바쁜 일상 속에서 사진이라는 소재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사진이라는 네모 모양(틀)에서 자유로운 시간이여서 재밌고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듯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일회용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니 젊은 때로 돌아가 과거의 시간을 추억할 수 있어 좋았고 사진 한 장 한 장의 귀함을 깨달았으며, 당장 볼 수 없는 사진의 결과가 궁금해서 기대심리가 높아졌다.

흑백필름 카메라를 처음 사용해보았는데, 정해진 횟수에 맞추어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며 기록을 남기는 시간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정신없이 지나간 하루에서 가장 여유롭고, 나른하고, 창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에서 나를 돌아보고 사색하게 되고 겸손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강의 기획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들으러 올게요.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의 소중함을 느꼈고, 좀 더 시간을 값지게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아날로그 감성에 젖어서 복잡한 생각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어서 힐링이 되었습니다.

강사 후기

프로젝트 [지금]을 마치며…

여은수

현재이지만 과거와 미래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는 [지금]이라는 시간…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과거나 미래의 의미를 더 많이 품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삶 속에 비춰지는 내 모습은 어떻지?’라는 원초적인 생각을 하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젝트 [지금]은 개개인의 감각을 통해 여유 있게 주변을 바라보며 사물과 공감하는 시간을 통해 그 속에서 내면의 에너지를 찾아보려는 작업이었습니다. 매스미디어 환경 속에서 축적되어온 수많은 자극 속에서 벗어나, 단순화된 옛 사진 작업을 통해 자연스러움의 가치를 이해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표현해 보면서 자신과의 긴 호흡을 가져보고자 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4주간의 시간 속에서 ‘참여자들이 지루해하지는 않을까? 준비한 컨텐츠에 흥미를 갖지 못하지는 않을까?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가시적인 사진 기술을 더 좋아하시지는 않았을까?’하면서 고민했던 염려와는 달리, 대다수의 참여자가 ‘[지금]이란 시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의 에너지를 만들어 보자!’라는 프로젝트의 취지를 이해하고 열심히 따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먼 훗날 만날 자신의 가슴 벅찬 감동을 그려보며, [지금]의 모습을 특별한 사진과 함께 한줄 메모로 준비해본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머리와 생각이 아닌, 가슴과 느낌으로 바라보았던 [지금]의 기록…

먼 훗날 사랑스런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상윤

모집대상에 대하여 어떤 정보도 없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조금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다. 좋은 교육과정을 가지고 홍보를 해도 오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수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업내용을 썼다 지웠다하기를 여러 번 했고, 단어 선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그러던 중 사진은 과학, 철학과 예술이 함께 있다고 생각해서, 개인 작업에 적용했던 내용 중 일부를 수업에 사용하였다.

첫 수업은 많이 알고 있는 알파벳으로 시작을 했다. 흑백필름이 들어 있는 일회용 카메라를 사용하는 수업이어서 익숙하고, 때로는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스스로 삶을 돌아보고, 주변을 살피고, 선택하는 시간이었다. 많은 분과 짧게 이것저것 이야기 나눴다. 어떤 마음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주변을 살피는지 가볍게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 시간은 예정되어 있던 디지큐라 수업을 청사진 만들기로(시아노타입) 바꿨다. 파란색에 대하여, 다시 돌아오지 않는 많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행히 날씨가 좋아 작업은 잘되었다. 동심으로 돌아간 듯 즐거워했던 분들이 기억에 남는다.

세 번째 시간은 디지큐라를 만들었다. 순서를 바꿔서 교육내용도 필름카메라, 감광, 그리고 카메라의 기원 순으로 되어서 강의하기가 좋았다. 똑같이, 빠르게 그리기 위해 만들어진 카메라 옵스큐라가 현대는 모호하고 느리게 촬영되어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았다. 그와 반대로 흐릿한 대상이 더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흐린 이미지를 통해 조심히 움직이고, 천천히 주변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졌던 대상이 묘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감성적인 사진을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 수업은 전시회로 진행하였다. 오랜만에 시 낭송을 시작으로 하여 시 낭송으로 수업을 마무리했다. 이정하 시인의 ‘비 오는 간이역에서 밤 열차를 탔다’와 도종환 시인의 ‘희망’이었다. 촬영한 사진 중 한 장을 액자에 넣으며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 액자와 작업된 사진을 각자 책상에 올려놓고 전시를 시작했다. 수업하면서 마음은 어떻게 변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현재는 어떤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한 말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길에서 마주치더라도 알 수 없지만 같은 공간과 시간을 공유했다는 기억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강사로서 좋았던 점은 서로에게 소중한 시간을, 추억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코로나 시대에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 주셔서 좋았다. 스치듯 삶을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누군가의 이야기가 내 삶에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어서 좋았던 시간이었다.

부평구문화재단 안효정 대리님, 박현지 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자리를 깔아주신 여은수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7월 삐-클라스 <나의 일상, 나의 이야기>

'나의 일상이 글이 된다.'

나의 경험도 내가 만났던 사람들도 그리고 현재 나의 감정도 모두 글이 될 수 있다. 작지만 큰 공감의 힘이 숨어있는 에세이를 작성해볼 수 있는 시간이다. <나의 일상, 나의 이야기>는 이론과 실습을 함께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매 시간 글쓰기 과제가 주어지며, 작가와 함께 피드백하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운영기간 2021.07.01.~22. 매주 목요일 19:30~21:30 (총4회차)

운영대상 20대 이상 성인 15명

교육장소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 비대면 줌(Zoom)

참여강사 최하나 작가

교육내용

- '나의 일상이 글이 된다.' 나의 경험, 만난 사람들, 감정을 글로 작성해보는 시간
- 에세이 장르 및 단행본 분석의 이론수업과 에세이를 직접 써보는 시간으로 구성

회차	제목 / 활동내용
1	**이론 | 스타일 찾기** 다양한 스타일의 작품이나 작가를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스타일 찾아보기 **실습 | 인생 그래프 만들어보기** 그동안의 일들을 그래프 형식으로 표시해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선택해 글을 써보기
2	**이론 | 다른 장르에서 배우는 에세이 쓰기**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 작품을 통해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방법 학습하기 **실습 | 단짝에 대한 글쓰기** 가족, 친구 혹은 직장동료 등 자주 보거나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묘사하고 글을 써보기
3	**이론 | 에세이의 트렌트 1** 요즘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에세이 작품에 대한 소개 및 분석하기 **실습 | 프리 라이팅 1** 즉석에서 뽑은 무작위 제시어를 가지고 글 써보기
4	**이론 | 에세이의 트렌드 2** 요즘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에세이 작품에 대한 소개 및 분석하기 **실습 | 프리 라이팅 2** 즉석에서 뽑은 무작위 제시어를 가지고 글 써보기

운영과정

7월 삐-클라스는 <글쓰기>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직장인을 대상으로 평일 저녁에 진행했다. 평일 저녁 시간대 모집이 될까 우려했지만 많은 지역주민들이 프로그램 신청을 했다. 글쓰기에 대한 목마름이 컸던 것 같다. 대면으로 기획해 운영했지만 아쉽게도 2회차 정도 진행했을 때, 코로나19가 확산되어 비대면으로 전환해 진행을 했다. 다행히 비대면으로 전환해도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진행이 가능했기에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 대면으로 만나 참여자들을 마스크를 쓴 모습만 봤는데, 비대면으로 각자의 집에서 만나 마스크를 벗은 얼굴도 볼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친근하고 가까워진 느낌이 들기도 했다.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진행해도 코로나 시국에는 장점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이번 글쓰기는 '에세이'를 써보는 프로그램이라 참여자들의 과거, 현재의 모습을 가까이 쳐다보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저마다의 삶이 글로 옮겨져 생생하게 다가와 참여자, 강사님 모두가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4주간 과제로 제출한 에세이들은 엮어서 책자로 만들었다. 나의 글이 책이 되어 만들어진다는 것은 참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에게 그 특별함을 선사하고 싶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8주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자 한 명 한 명의 책 한 권을 가져갔으면 한다.

[참여자 후기]

다시 글을 쓸 수 있는 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때 아이들의 일상을 기록하는 정도로만 글을 써봤던 저였습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할 일도 글로 남길 일도 없던 제게 이 시간은 정말 특별했지요. 코로나 심해져서 줌 수업으로 바뀌어 태어나 처음으로 줌도 해보고 이번 강의는 저에게 정말 특별했네요. 고맙습니다.

작가님의 강의와 함께 매주 글쓰기 실습을 할 수 있었고 기대하지 않았던 피드백까지 받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작가님께서 실질적인 글쓰기 경험을 나눠주시고 일반인도 접근 가능한 루트를 정말 친절히 알려주셔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예술, 문학 등)의 전문인과 일반인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획 프로그램이 참 좋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냥 강연만 듣는 것보다 어렵지만 한번 글도 써보고 함께 공유하는 부분 또한 매우 좋았습니다. 작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에세이를 쓰고 싶은 초보 라이터들에게 힘을 주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이론, 글쓰기와 관련된 책과 이슈 소개, 실습으로 이어지는 커리큘럼이 좋았고, 이전에는 생각이 담긴 글쓰기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수업 들으며 편안한 마음을 갖고 글쓰기에 임할 수 있었어요. 작가님이 소개해준 컨텐츠들을 잘 즐기며, 앞으로도 꾸준히 글쓰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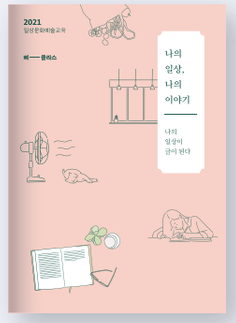
강사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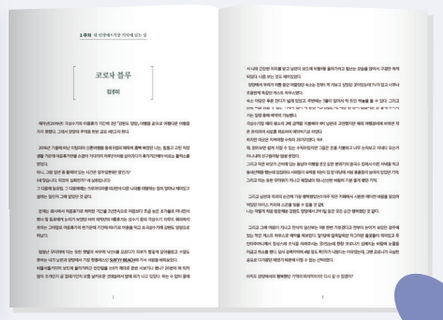
최하나

바야흐로 영상의 시대라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글의 힘을 믿습니다. 영상에 어울리는 소재가 있듯이 글에 어울리는 소재도 따로 있기 때문이죠. 가족이나 친구에게 쉬이 털어놓기 힘든 철학적인 고민. 얼굴을 드러내고 말하기에는 힘든 아픔. 수치로 정확히 표현하기 힘든 기쁨과 환희.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얀 화면을 마주하며 쓸 말을 하나씩 고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성해서 저 너머에 있는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 없는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소통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죠.

저는 글을 씁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 이 글 쓰는 기쁨과 매력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과 나누고 그들을 기어코 쓰게 만들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직장을 다니며 시작했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고 15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글쓰기 강의를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단순히 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의 뜻을 전하고 사람들을 글의 매력에 빠지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삐-클라스도 그랬습니다. 4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고 열심히 따라와 준 수강생분들 덕분에 거꾸로 힘을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매주 보내주시는 글을 읽으며 감히 어딜 갈 수도 누굴 만날 수도 없는 이 엄혹한 시기에 자유롭게 인생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만 바람이 하나 있다면 수업은 끝이 났지만, 수강생분들의 글쓰기는 이게 끝이 아닌 시작이길 바란다는 겁니다. 글과 함께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나가시길 감히 바라봅니다.





10월 삐-클라스

<가배 플렉스>

커피 한 잔을 즐겨도 “있어 보이게! 플렉스”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 커피 애호가들이 모여 나만의 커피 이야기를 공유하고 세계 곳곳의 커피문화를 즐기며 나만의 커피를 찾는 시간이다. 문화예술교육을 기존의 문화예술 장르를 넘어 생활문화 영역까지 확장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지역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나'에게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했다.

운영기간 2021.10.07.~28. 매주 목요일 10:00~12:00 (총4회차)

운영장소 부평생활문화센터 카페

운영대상 20대 이상 성인 15명

참여강사 엘카페딸 강인규, 전서연, 이성근

교육내용

- 여가시간의 증가, 코로나19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나홀로 족’이 모여 자신만의 커피를 공유하고 커피향을 따라 세계를 여행하며 나만의 배합으로 세상 하나뿐인 커피를 즐겨보는 시간
- 커피 한 잔을 즐겨도 “있어 보이게! 플렉스!” 커피 공화국 대한민국의 커피 애호가를 위한 강좌

회차	주제	제목 / 활동내용
1	가배의 세계	**나라별 생두, 원두 특징 알아보기** 커피역사, 프로세스, 등급체계, 인증커피, 결점두란 무엇인가
2	가배 로스팅	**나라별 생두 로스팅 방법 배우기** 본격적인 로스팅 실습 진행 : 서로 릴레이 방식으로 설명해주기
3	가배 드립	**핸드드립 이론 및 도구 사용법 익히기** 나라별 원두 중에 내가 좋아하는 맛과 향을 찾는 시간
4	가배 플렉스	**핸드드립 실습, 트라이앵글 테스트** 다양한 원두를 나의 취향을 반영하여 블렌딩해보는 시간

운영과정

하반기에 처음 진행한 삐-클라스 프로그램은 ‘커피’였다. 주제가 주제인만큼 방역에 더욱 신경을 써서 진행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방역에 조금 더 힘을 써서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었다. 교육장소 내 커피 시음 불가 등 제한들이 많았지만 모두 하하호호 웃으며 마무리한 프로그램이다. 장소 또한 부평생활문화센터 내 카페 공간을 활용해 개방감 있고 주변 경치를 바라보며 원두 로스팅부터 핸드드립까지 해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 일정 내내 청명한 가을 날씨여서 모두 산들산들 바람과 햇살을 맞으며 여유를 만끽했다. 다른 커피 수업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로스팅부터 진행해 커피의 전 과정을 맛 본 ‘가배 플렉스’는 모두에게 선명히 기억에 남을 특별한 시간이었다.

[참여자 후기]

> 이런 프로그램 참여가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더 퀄리티도 높고 제가 무언갈 해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좀 더 자주 많은 인원이 즐길 수 있게 요일 나눠서 있으면 좋겠네요 ^___^

가성비가 너무 좋았고, 기대한 것 그 이상의 알차고 유익한 내용이었음. 단순히 커피에 대해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 맞는, 취향을 발견해가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강좌의 취지가 커리큘럼과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 곁들임 간식을 주셔서 준비하는 분들의 센스가 돋보이고 감사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오전시간 힐링할 수 있었다. 탁 트인 공간에서 커피향을 맡으며 즐겁게 배울 수 있었다.

강사 후기

‘Just the way you are’ 엘카페딸 강인규, 전서연, 이성근

물론 커피가 맛있기 위해 어느 정도 지켜져야 하는 법칙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론 그 법칙들은 유행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법칙과 유행을 뛰어넘는 각자의 취향이 있는 것 역시 부정할 순 없습니다. 어쩌면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 법칙과 취향 사이에서 나만의 커피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커피 잘 몰라요.’ 매장에서 손님들을 만날 때에, 또는 교육을 진행하며 수강생 분들을 만날 때에 이런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과 커피 한 잔과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모두가 자신만의 취향이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커피를 잘 모른다고는 하지만 누구든지 지금 마시는 그 커피가 자신에게 잘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은 엘까페딸이 그동안 우리가 찾아온 법칙들 속에서 각자의 취향을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수강생은 수업을 통해 커피의 재료인 생두에서부터 로스팅, 그리고 추출까지 수강생 본인이 직접 자신의 커피를 상상하고 실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수업을 마친 뒤에는 모두가 ‘나는 이런 커피를 좋아해!’라는 문장을 어느 정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수업을 진행한 저희도 또 다른 저희의 취향을 발견할 수 있었죠.

2주 차 수업을 진행하며 인생 커피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한 수강생께서 ‘지난주 볶아갔던 콜롬비아 유기농 아그로타타마 원두를 집에서 직접 내렸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지금은 이게 제 인생 커피에요.’라는 대답을 하셨을 땐 잠깐이지만 속에서 뭔가 벅차오르는 기분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커피가 스스로 가장 기억에 남는 커피가 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 아닐까요?

Billy Joel의 ‘Just the way you are’라는 노래는 우리 모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애써 꾸미거나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만의 커피를 찾아가는 여정을 진행 중인 이들에게도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반드시 어떤 법칙과 유행에 따르지 않더라도, 남들이 정해 놓은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나에게 맛있는 커피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 여정은 한결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매주 새로운 커피를 만났을 때의 감격으로 환한 미소를 띠던 수강생 한 분 한 분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가을이 바쁘게 옷을 갈아입던 때, 잠깐이나마 커피 여정을 함께 했던 수강생분들, 직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11월 삐-클라스 <드로잉의 맛>

"우리는 언제부터 그리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지우개는 필요하지 않아요.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돼요. 그리기에 정답은 없어요.

단 한 자루의 펜과 종이만 있다면 어디서든 맛볼 수 있는 드로잉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림에 대한 이론, 실기를 배우는 단순 기술습득 교육이 아니다. 그림에 대해 접근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통해 보다 예술에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다.

운영기간 2021.11.04.~25. 매주 목요일 19:30~21:30 (총4회차)

운영장소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운영대상 20대 이상 성인 16명

참여강사 김효찬 작가

교육내용

• 나의 일상을 펜과 종이 하나만으로, 밑그림이나 사진, 지우개 없이 그려보는 드로잉 강좌

•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특별한 도구나 재료 없이 펜과 종이 하나만으로 나의 주변을 그려보는 시간

회차	주제	제목 / 활동내용
1	소품을 예쁘게 그릴 수 있다	**우리의 그림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 간단한 소품을 그려봄으로써 나쁜 습관을 찾아보고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본다.
2	간단하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학교에서 배운 원근법은 과연 맞는 것인가** : 나의 위치와 테이블 각도를 관찰함으로 투시도법의 한계와 소실점이 갖는 진짜 의미를 알아본다.
3	태어나 처음 복잡한 공간을 완성한다	**거짓말을 해, 틀려서 더 괜찮은 공간의 구성** : 우리가 좋아하는 그림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비뚤어져서 더 아름다운 드로잉의 맛
4	예쁘고 복잡한 카페 공간을 실전으로 완성한다	**실전 카페 그리기** : 조명, 소화전, 의자, 테이블 등 소품들로 빼곡한 카페 공간을 자신만의 개성있는 선으로 완성해보기

운영과정

2021년도 마지막 삐-클라스는 '드로잉'으로 진행했다. 이번에도 평일 저녁 시간 직장인을 대상으로 했다. 상반기 오전 1번, 저녁 1번,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오전 1번, 저녁 1번으로 진행해 연4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로잉 수업은 그리기 이론이나 방법에 치우쳐 배우면 자칫 지루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잘 그리기에 급급해 나의 그림을 온전히 바라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을 모시고 한 달간 만났다. 기존 드로잉 수업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찬 수업이었다. 시작하자마자 강사님이 하신 말씀은 "자, 그리세요!" 였다. 그리고 몇 가지 그리기에 대한 말을 해주었다. "절대로 지우개를 사용하지 마세요", "시작한 그림은 무조건 완성하세요", "원래 내 그림은 예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스럽게 봐주세요." 등등 어떤 기술이나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4주가 지나고 수강생들의 드로잉 실력은 몰라보게 성장했다. 어떤 마법이 펼쳐진 것일까.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강사님의 끊임없는 칭찬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 건 아닐까 싶다. 드로잉을 익히고 배우기 너무 짧은 시간이라 모두가 아쉬워했고 모두가 다음을 기약했다.

[참여자 후기]

> 드로잉 4주차는 좀 짧은 것같아요. 연결된 교육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
> 늘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다 생각하며 살다가 최근에 자기표현의 수단으로써 그림을 생각하게 된 이후로 그림이 너무 배우고 싶어서 신청했다.
>
> 좋은 프로그램 기획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드로잉 클래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 같은 주제나 강사의 4회기 정도의 교육을 여러 시리즈로 2-3세트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속하고 싶은 사람은 재등록 할테고 새로운 사람도 기회를 가질 수 있구요. 아니면, 교육 후 동아리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적극 참여 의사 있습니다.

강사 후기

김효찬 작가

몇 년 째 여러 기관에서 많은 수업을 해오고 있지만, 종강을 맞이하는 마음은 도통 적응이 되지 않아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나누는 인사가 안타깝다.

나는 그럴 때 마다 내 수업에 모였던 수강생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에 대해 생각한다.

어떤 이는 종일 집안일에 시달렸을 것이고 어떤 이는 학업에 진이 빠졌을 것이며 또 어떤 이는 먹고 사는 밥벌이에 녹초가 됐을 것인데, 그럼에도 이 늦은 시간에 굳이 나와 앉아 그림을 그리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

나의 수강생들은 이토록 무겁고 캄캄한 시간에 내게 무엇을 바라, 굳이 수업에 나와 돈도 되지 않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이토록 순수한 열정 앞에서 그림으로 밥벌이를 하는 나는 매번 작아진다.

나의 수강생들은 나의 수업에 찾아 올 때 엄청난 스킬이나 고수만의 비법 같을 것을 기대하고 오겠지만, 미안하게도 나는 그림 그리는 방법을 일절 가르쳐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뭇잎 한 점을 그린다 해도 내가 그리는 방식을 그대로 배운다면 자신의 그림이 아닌 나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요한 지점으로, 사람은 각자의 서사가 있고 그 서사에 따라 모두의 감성은 달라 나뭇잎 한 점 조차 각자 다르게 보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나의 수강생들이 쉬이 배울 수 있는 잔기술 보다 자신의 그림을 예쁘게 볼 수 있는 눈을 개안하기를 바란다. 화려한 기술로 의미 없이 그려지는 예쁜 낙서를 하기보다 나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의미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길 바란다. 그림을 포함한 모든 예술은 언어임을 이해하길 바란다.

이번 [부평구문화재단]에서의 수업은 4강으로 몹시 짧았지만, 그럼에도 수강생들의 감수성은 맑아 나의 이런 바람을 잘 이해해 주시어 종강이 더 아쉬웠던 모양이다.

예술을 이해하고 구사할 줄 안다는 건 나를 애정 어린 눈으로 돌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더 강렬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의 수업을 들었던 분들 모두 이런 마음을 잃지 않기를, 부디 드로잉이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원활한 수업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애써주신 안효정 선생님께도 감사한 마음이다.

4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

01
문화예술교육 협의체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협의체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지역화로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며 지역 문화예술단체와의 협력관계,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 이에 발맞춰 부평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지역문화예술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만나 부평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올해 처음 마련한 것으로 정식 운영에 앞서 각 분야별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체 운영방식에서부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다.

운영기간 2021.05~12

운영대상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역예술인, 관내 학교 강사, 교육지원청,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등

운영내용
- 지역 내 다양한 문화주체가 모여 문화예술교육 관련 이슈,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 마련
- 지역 및 현장 기반 문화예술교육 분야 정책방향과 미래가치를 논의하며 협력적·참여적 네트워크 구축

운영방식 (2021) 사전 논의단계 → (2022) 정식 구성원 구성 및 운영

운영과정

1회차 2021.05.03.(월) 15:30 온라인 회의(zoom)

주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참석자 북부교육지원청 설지은 장학사, 청천중 이수행 교사, 산곡여중 박진희 교사, 청천초 박우경 교사, 갈월초 이수현 교사, 이하림 교사, 마장초 최중락 교사

※ 본 회의는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마을교육연계 문화예술분과와 공동으로 진행함

2회차 2021.05.13.(목) 10:00 부평아트센터 회의실

주제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논의

참석자 부평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한솔 팀장

3회차 2021.05.20.(목) 15:00 부평구청소년수련관 회의실

주제 관내 청소년 기관 협업 방향 논의

참석자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전수현 팀장

4회차 2021.11.10.(수) 15:00 부평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

주제 지역문화예술교육 운영방향 및 협업방향 논의 1

참석자 공연창작소 지금 이은선 대표, 아트팩토리 사람 김원범 대표, 에코필댄스컴퍼니 김옥희 대표, 최창학 강사, 극단 상상이상 김은미 강사, 이상명 강사, 오연주 강사

5회차 2021.11.20.(토) 13:00 부평아트센터 회의실

주제 지역문화예술교육 운영방향 및 협업방향 논의 2

참석자 극단 목요일오후한시 강경선 단원, 이현수 단원

6회차 2021.11.30.(화) 15:00 부평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실1

주제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방향 및 재단 역할 논의

참석자 인천연구원 최영화 박사, 인하대 문화예술교육원 전승용 교수, 현광일 작가

5

지원사업

01
외부공모지원사업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외부 공모사업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외부 공모지원 사업 운영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이번 연도 지원사업의 주된 이유는 재단의 자체 예산으로는 계획하지 못한 초등 고학년, 그리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지역의 문화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을 지원받았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경이로운 미디어아트>

운영기간 2021.04.24.~07.03. 매주 토요일 10:00~12:00 (총10회, 기수별 5회)
운영대상 초등 4~6학년
운영장소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 갤러리
예술교육가 윤제호, 박선유 작가
지원기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어른래퍼>

운영기간 2021.08.18.~10.29 매주 1회 11:00~13:00 (총10회, 기수별 5회)
운영대상 힙합음악에 관심있는 성인
운영장소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비대면
예술교육가 신건희(a.k.a.Kabo), 정승교(a.k.a.JSK) 그리고 박하재홍(a.k.a.MC세이모)
지원기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

운영기간 2021.03~12
운영내용 문화예술교육의 특성 및 필요성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 지속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
지원기관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싱싱 프로젝트 : 나에게 보내는 노래>

운영기간 2021.08.27~09.24 매주 금요일 10:00~12:00 (총5회차)
운영대상 50세 이상
운영장소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줌)프로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예술교육가 채수진, 송민경, 문지은(악기연주), 함푸른(음원작업)

<싱싱 프로젝트 : 내 마음 드로잉>

운영기간 2021.10.1~10.29 매주 금요일 10:00~12:00 (총5회차)
운영대상 50세 이상
운영장소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줌)프로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예술교육가 조선영(초선영), 박정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경이로운 미디어아트>

미디어아트를 통해 나의 생각, 감각을 확장하고 표현하며, 일상이 예술이 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 특히, 미디어(기술)를 통해 시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의 확장을 경험하고 예술과 만나는 지점을 발견해 나만의 새로운 예술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기획전시와 연계하여 전시관람 및 큐레이터의 해설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마련하였다.

운영기간 2021.04.24.~07.03. 매주 토요일 10:00~12:00 (총10회, 기수별 5회)
운영대상 초등 4~6학년 30명 (기수별 15명)
운영장소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 갤러리
참가비 무료
예술교육가 윤제호, 박선유 작가

교육내용

- 기술을 통해 시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의 확장을 경험하고 예술과 만나는 지점을 발견해 나만의 새로운 예술작품을 창작해보는 시간
-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기획전시<음악의 기술 展>과 연계하여 전시관람 및 큐레이터와의 만남을 가지고 새로운 직업세계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시간
- 예술감상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미술과 미디어아트에 대해 이해하고 나만의 작품세계가 담긴 미디어아트 작품 만들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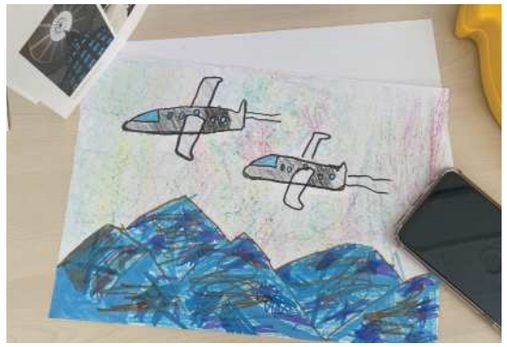
회차	제목	활동내용
1	사운드아트를 만나다	**청각에서 시각으로 감각의 전이 체험하기** • 소리만 듣고 무엇인지 그려보고 이야기하기 • 핸드폰으로 주변 소리를 녹음하여 생각 표현하기 • 소리로 음악 만들어보기
2	비디오 / 비주얼 아트를 만나다	**비디오 아트를 알아보고 간단한 작품 만들기** • 비디오 아트란? • 백남준 작품감상 • 우리 주변의 풍경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나만의 비디오아트 작품 만들기
3	미디어아트를 만나다	**미디어 아트를 이해하고 전시관람하기** • 갤러리 전시 감상 • 전시 관람 후 느낌 점과 사용된 미디어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 미디어아트 및 기술발전과 함께 예술작품 흐름 살펴보기
4	프로젝션 매핑 아트를 만나다	**전시에 많이 쓰이는 프로젝션 매핑에 대해 알아보기** • 전시에서 인상깊게 본 표현방법 공유 • 프로젝션 매핑이란? • 프로젝션 매핑 기법을 사용한 작품감상 • 프로젝션 매핑 해보기
5	나도 미디어 아티스트	**미디어 작품 만들기** 지난 시간에 경험했던 미디어 중 자신의 생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뉴미디어를 사용하여 예술작품을 만들어본다.

운영과정

올해 처음 시작을 뗀 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경이로운 미디어아트>이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이전보다 '미디어'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를 활용한 예술장르로 친구들을 만나보면 어떨까 싶어 시작하게 되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미디어를 접해서 생활 속에서 미디어를 사용하는게 익숙한 친구들이다. 이 친구들에게 그렇다면 '미디어'와 '예술'이 만나면 어떤 모습이 될지 함께 탐구하고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했다. 사운드아트, 비디오아트, 프로젝션 매핑 아트 등 미디어아트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체험하며 나만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역시나 미디어 사용이 익숙해 누구보다 빠르게 도구를 활용하고 적용해 다양한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갔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별히 재단 내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기획전시와 연계했다. 올해 진행되는 기획전시 중 '미디어아트' 관련 전시일정을 참고해 교육일정을 잡고, 참여어린이들이 전시 관람 또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작가들이 만든 미디어아트 작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실로 많은 참여어린이들이 즐거워했고, 미디어 아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가 함께 전시해설을 곁들어 보다 작품을 깊게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5회차로 매우 짧은 시간동안 진행되어 깊이 있게 미디어아트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는데, 차후 보다 긴 호흡으로 친구들을 만나 실제로 부평아트센터 외벽을 활용해 작품을 만들어보는 큰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떨까 바라본다.



예술교육가 후기

윤제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경이로운 미디어아트>는 소리 감각을 일깨우는 사운드 아트를 시작으로 비주얼아트, 미디어 아트 전시 관람, 일상 공간과 오브제를 새롭게 창조하는 프로젝션 매핑, 미디어 아트 작품 만들기로 진행되었다.

사운드 아트 수업에서 소리를 조합하여 일상의 소리 만들어 보기와 심상을 소리로 표현하기를 하였다. 아이들의 섬세한 감각과 기발한 생각들이 인상적이었고 같은 사운드를 듣고도 다양하게 발상하는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았다. 또 전시 관람 후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작품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그리고 발표하는 시간이 기억에 남는다. 그 중 한재석 작가의 <기라성 Kira-sung> 작품에서 발전시킨 아이디어가 인상적이었는데, 천장과 바닥 금속 막대기를 각각 반쪽 하트로 만들어 상하 좌우로 움직여서 하나의 하트가 완성되면 스파크를 만들게 하는 아이디어로 만남으로 완성되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놀라웠다.

5차시 프로젝션 매핑을 사용한 작품 만들기가 기억에 남는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전 다소 어렵지 않을까 고민했던 지점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마치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 매핑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사용하여 3면 오브제나 액자 그리고 큐브에 각자 만든 영상을 훌륭하게 투사하였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걱정했던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지 않아 다양한 실습을 모두 소화한 것이 다행이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은 훨씬 디지털 원어민이었다. 기술을 습득하고 예술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능숙했고 발상하는 능력 또한 경이로웠다.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여 준 부평구문화재단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한 10~20년이 지난 후에 <경이로운 미디어아트>에 참여하였던 수강생 중에 세계를 뒤흔들 경이로운 미디어아티스트가 나오길 기대한다.

박선유

10주간의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치고 후기를 작성하는 지금,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을 위해 여러모로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을 만나야만 했지만, 그래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어딘가. 비록 아이들의 정확한 얼굴과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아쉬운 만큼 더 열심히 목소리를, 그리고 몸짓을 기억해본다.

예상했던 대로 아이들은 이미 컴퓨터,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너무나도 익숙하게 다룰 수 있었고, 수업 중 사용한 프로그램들에도 큰 어려움 없이 적응했다. 우리는 아이들이 이미 익숙한 소재와 매체들로부터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사고를 확장하며 미디어아트로 진입할 수 있기를 바랐는데, 이렇게 제시한 개념들도 매우 유연하게 받아들였다.

영상들을 혼합하고, 변형하며 자신들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내내 감탄과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는데, 이 과정을 보며, 어른들이 생각하는 '기술의 난이도'란 이 세대의 아이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다 싶었다. 오히려 아이들은 선생님의 같은 설명을 동시에 듣고도,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며 자기만의 개성을 담은 표현들을 만들어 내었다. 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더 많은 교육적 시도에 대한 필요를 확신하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발표는 또 어찌나 잘하는지!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모습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우리는 함께 전시를 본 후, 전시에서 얻은 아이디어와 영감을 바탕으로 나만의 미디어 작품을 스케치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처음에는 발표에 어려움을 느끼던 아이들도 대화로 생각의 물꼬를 터주자 온갖 재미있는 생각들을 쏟아내었다.

또 예술적 개념이나 작품들을 자신들의 진짜 일상과 자연스럽게 융합시키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마법 망토를 체험하면서 과자를 몰래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깔깔거리던 모습, 요술 액자를 만들면서 자신들의 춤추는 모습을 끊임없이 TikTok 영상으로 찍던 모습들을 보면, 이 세대의 아이들은 확실히 이전에 비해 기술, 예술, 일상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음을 느낀다. 이 아이들의 유연한 사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더 자유롭게 상상하고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미디어·기술·예술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와 개발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사운드아트와 비주얼아트, 프로젝션 매핑을 통한 미디어아트 전반을 다루면서, 아이들이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창작이 가능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예술의 감상과, 체험, 창작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했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 중 전시 관람을 통해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접한 것은 균형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했고, 아이들에게 예술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증폭시켜 수업에 대한 참여의지를 높여 주었던 것 같다.

여러 면에서 유쾌하고 후회 없는 시간이었다. 코로나 시국이 빨리 끝나서 다음에는 꼭 아이들의 웃는 얼굴과 함께 더 자유롭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지원 사업으로 운영된 <어른래퍼>는 성인들을 위한 '예술감상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관람하는 예술 장르에 대한 기초 지식 습득과 관람 예절 등을 배우는 교육으로 주변에서 쉽게 접하며 익숙한듯하지만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힙합' 장르를 선보이게 되었다. 성인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인 만큼 접근 문턱을 낮추기 위해 힙합에 대한 기능위주 교육은 지양하고 힙합 문화를 이해하고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2021 어른들의 예술감상 놀이터 <어른래퍼>

운영기간 • 1기수 2021.08.18.~09.15. 매주 수요일 11:00~13:00 (총5회)
• 2기수 2021.09.30.~10.29. 매주 목요일 11:00~13:00 (총5회)
• 공연관람 2021.10.29. 금요일 19:30 <오늘도 무사히 콘서트 II >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운영방식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비대면

운영대상 힙합 음악에 관심 있는 성인 41명

참가비 무료

예술교육가 신건희(a.k.a.Kabo), 정승교(a.k.a.JSK) 그리고 박하재홍(a.k.a.MC세이모)

교육내용

• '힙합 음악'을 예술적,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일상에서 향유함
• 힙합 음악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감상 기능 향상
• 다양한 장르의 랩 음악을 감상하고 '힙'한 몸동작과 매너 등을 익히며 힙합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제시

회차	주제	내용
1	힙합과의 첫 만남	• 힙합 문화와 유래 파헤치기 • 랩의 기본 구성요소는 무엇일까? • 힙합 음악 스타일 탐구하기 • 힙합 활동명 만들기
2	거리 위의 시인	• 우리나라 힙합 발자취 따라가기 • 가사 톺아보기 • 8마디 가사 써보기
3	10대처럼 들어라 (feat. 박하재홍)	• 음악을 매개로 풍부한 대화 나누기
4	내 귀와 몸이 반응하는 힙합	• 힙합 문화 그리고 유행 • 잘하는 랩은 어떤 랩일까 • 배틀랩과 디스랩
5	공연 관람	• 영상 : <힙합플레이야쇼 29> 감상 • 공연 : <오늘도 무사히 콘서트 II >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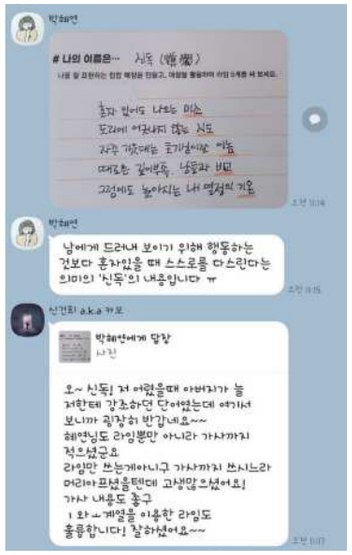
운영과정

'A-Yo!' 어른들의 예술감상 놀이터 <어른래퍼>는 언젠가 한 번 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를 쏟아내며 래퍼인 나를 상상해본 적 있는 어른들을 위한 교육이다. 1020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힙합'을 성인들에게 누구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수업 내용을 구성하는데 오랜 시간 고민을 했다. '랩을 배운다'는 말이 학습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랩을 하는 방법 즉 랩 기능에 대한 강의는 배제하고, 힙합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힙합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전달하고자 했다. 교육 준비 과정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대면 운영에서 비대면 운영으로 변경, 양질의 교육을 위해 실시간 소통과 콘텐츠 배포를 병행하여 운영했다.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교육이라 원활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비대면 방식에 자연스레 그리고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1기수 참여자 21명 모두 교육 시간 전에 어려움 없이 온라인 화상 회의 프로그램에 접속을 했고, 교육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손들기 기능과 채팅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교육에 대한 열의를 불태웠다.

힙합을 이해하는 교육인 만큼 매 회 차 마다 가능한 많은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다. 시간 관계상 음악의 일부만 듣기도 했지만, 교육 종료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오늘 들었던 음악 목록과 추가로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목록을 올리며 참여자가 언제 어디서나 힙합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과제 제출과 피드백의 창구로도 활용되었다. 참여자가 과제를 올리면 예술교육활동가가 답변을 해주고 좀 더 나은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 참여자가 다시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모두 힙합에 대한 열정이 어찌나 뜨겁던지 오픈채팅방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밤새 의견을 주고받았다.

힙합을 구성하는 라임과 플로우를 배우고 난 뒤 음악을 들을 때 가사의 라임을 찾아 채팅창에 올리는 것이 하나의 놀이가 되었다. 힙합이 시조와 비슷해서 역시 우리는 흥의 민족! 힙합의 민족임을 자부하며 모두들 그 매력에 빠져들었다. 흥의 절정은 역시나 공연관람이었다.



공연장을 들어서서 출석을 확인하고 티켓을 찾아가는 참여자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이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문화생활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물론, 이제 알고 듣는 음악이 얼마나 즐거울까!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던 것 같다. 스카이민혁부터 맥대디, 자메즈 그리고 릴보이로 이어지는 랩 파티에서 소리는 지를 수 없지만 온 몸으로 힙합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공연 종료 후 발그레한 얼굴로 알고 즐기니 기쁨이 배가 되었다며 이런 교육을 진행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 문화예술의 강한 힘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다음이라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중장르의 이해를 넘어서서 힙합 음악이 철학적인 가사로 세대를 초월하는 소통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

예술교육가 후기

강사 신건희 (a.k.a. Kabo)

지난 봄, '힙합' 교육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오, 재밌겠는 걸' 이었다. 평소 10대 대상의 교육을 진행했던 내가, 다양한 연령대의 그것도 성인들에게 힙합, 랩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다니! 설렘으로 가득찼다.

어떤 내용을 채워야할까 고민을 하며 힙합 그리고 랩에 대한 기초를 다시 공부하며 강의 내용을 타이핑하고, 혹시나 내가 빠뜨린 요소들은 없는지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을 거치며 내가 처음 랩을 접했던 그 때 그 시절이 떠올랐다.

그 때에는 '힙합'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줄만한 책이나 영상 등이 없었기 때문에 블로그에 어렵게 설명된 글을 계속 읽어보고 다른 래퍼들의 랩을 듣고 가사를 탐구하면서 '힙합'의 기본 개념에 대해 이해하느라 꽤나 긴 시간을 할애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래서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나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게 '힙합 음악'을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커졌다.

내가 고생했던 기억들을 밑거름으로 최대한 쉽게 정리한 자료들과 흥미를 유발할만한 노래들로 가득채운 첫 시간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열정을 다해 강의를 했었다.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계획과 달리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며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익히느라 서툰 부분도 많았고, 참여자의 반응을 바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1~2회 차 수업을 하면서 내가 수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참여자들은 잘 이해하고 있는지 계속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3회차 박하재홍 선생님의 특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비대면 교육 시 참여자와의 소통 방식에 대해 조금 깨닫게 되었고, 참여자의 입장에서 내 강의가 어땠을지 생각해보며 점차 즐겁고 재미있는 강의로 발전할 수 있었다.

1기, 2기의 모든 수업을 마치고 참여자분들의 재밌었다, 좋은 수업 감사하다, 힙합이 친근하게 느껴진다 등의 따뜻한 후기들이 아직도 내 머리 속에 맴돈다. 여태까지 진행했던 많은 강의 중 제일 보람찬 기억을 갖게 된 시간이었다. 지나고 보니 비대면이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긴장한 상태로 진행된 강의라 참여자분들께 더 많은 것을 알려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크게 남아있다. 다시 또 힙합 음악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재밌고 알차게, 그리고 서로 얼굴 마주보고 음악을 듣고 즐기는 강의를 하고 싶다. 강의 준비 시간부터 공연관람까지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정말 보람차고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부평구문화재단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또한, 5주 동안 나와 함께 힙합의 매력에 흠뻑 빠졌던 41명의 참여자분들께도 평일 오전 11시에 시간을 내어주셔서, 또 나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정말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

2020년에 이어 또 다시 참여하게 된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후 3년 미만인 청년 문화예술교육사에게 예술현장 업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운영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의 특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문화시설을 활용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원하게 되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하였고 입사 후 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역량 강화 워크숍과 자료 조사를 통해 시니어 대상의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비대면 운영으로 코로나19에 지친 지역민을 위로했다.

<싱싱프로젝트>

<싱싱 프로젝트>는 2021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이다.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중 생애전환기를 대상으로 준비했다. 50+ 세대가 음악과 미술을 활용해 잊고 있었던 '나'를 찾고, 단순 기능 습득교육이 아닌 자아성찰적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삶의 가치를 재탐색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고, 불안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코로나 블루를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자아존중감 회복과 지역공동체 소속감 향상을 극대화 하고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실시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했다. 비대면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참여자 15명 내외의 소규모 수업을 진행하고 줌(zoom)의 소회의실 기능을 이용해 2명에서 6명까지 조를 나눠 참여자들 간 긴밀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진행했다.

"나에게 보내는 노래"

운영기간 2021.08.27~09.24 매주 금요일 10:00~12:00 (총5회차)

운영대상 50세 이상

운영장소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줌)프로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예술교육가 채수진, 송민경, 문지은(악기연주), 함푸른(음원작업)

"내 마음 드로잉"

운영기간 2021.10.1~10.29 매주 금요일 10:00~12:00 (총5회차)

운영대상 50세 이상

운영장소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줌)프로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예술교육가 조선영(초선영), 박정은

싱싱프로젝트 1 <나에게 보내는 노래>

"나, 돌아갈래!!" 엄마, 아내, 남편, 아빠, 누구의 그 무엇이 아닌 온전히 나를 찾는 특별한 시간

그때 그 시절 나만의 특별한 노래가 있나요? 인생곡을 통해 잊고 있던 나를 찾는 시간! 내 이야기가 담긴 나만의 노래를 만들어 삶을 싱싱하게 만드는 시간

운영기간 2021.08.27~09.24 매주 금요일 10:00~12:00 (총5회차)

운영대상 50세 이상 15명

운영장소 비대면 교육(Z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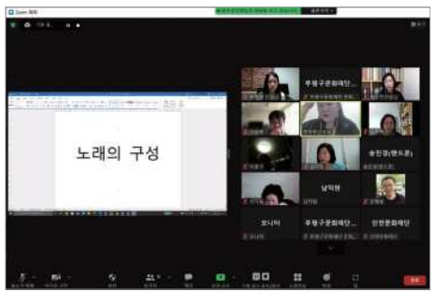
참가비 무료

예술교육가 채수진, 송민경, 문지은(악기연주), 함푸른(음원작업)

교육내용

- 인생곡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나에게 보내는 노래를 만들어보는 구성
- 음악을 통해 삶을 회고하고 가치 발견하는 시간

회차	주제/키워드	프로그램 세부내용
1	수업소개, 친밀감 형성	• 내 일상 속 음악요소 탐색 • 일상을 주제로 만들어진 음악 감상 • 노래 창작을 위한 악보그리기 워밍업: 그래픽 노테이션
2	모두의 인생음악	• 그 때, 그 음악: 내 음악 소개 및 내 이야기 공유 • '나에게 보내는 노래' 타임라인 작성
3	나에게 보내는 노래 1. 가사 만들기	• '나에게 보내는 노래' 타임라인 발표 • '나에게 보내는 노래' 가사 제작 • 코드진행의 예시, 리듬패턴의 예시 탐구 - 내 노래에 적용할 진행 및 패턴 결정
4	나에게 보내는 노래 2. 음악 만들기	• 가사, 음악의 매치 • 내가 제작한 음악, 녹음파일 제작
5	완성곡 감상	• 음악 소개 및 감상



운영과정

이번 싱싱프로젝트 “나에게 보내는 노래”는 전에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성인 대상의 예술교육 <뮤직 레시피>를 운영한 강사진과 다시 한 번 협업하였다.

대상설정과 수업방향 설정부터 논의하여 대면 수업을 준비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운영으로 전환하였다. 그 과정에서 악기를 직접 연주해보고 소리를 들으며 작곡하던 것들을 악기 연주자를 직접 섭외하고 강사진이 음계를 들려주며 참여자와 소통하여 작곡하는 방법으로 바꾸어 진행하였다. 음악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대화를 통해 곡을 만들어가며 참여자들이 보다 쉽게 곡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여 수업시간에 참여한 활동을 공유하며 모든 참여자가 심층적으로 수업을 바라보도록 하였다.

화상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운 참여자들을 위하여 프로그램 검색부터 수업진행 시 활용하는 기능까지 세세하게 담은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하였고, 수업 전 기능 테스트 및 안내를 하는 시간도 가져 참여자들이 무리 없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대면 교육에 필요한 재료들은 키트로 구성하여 수업에 막힘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업 안내문 또한 함께 첨부하여 매 수업 시간 어떤 것을 진행하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회차에는 2명씩 짝을 지어 소회의실을 운영해 서로에 대해 짧은 대화를 나누고 대화를 기반으로 서로의 첫 인상을 그려 모두에게 소개하는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졌다. 지역, 연령대, 같은 생애 주기를 겪는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그런지 비슷한 직업군, 삶의 방향을 가진 참여자들이 많았고 덕분에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며 공감대와 신뢰가 형성되었다.

2회차에는 영상자료를 통해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가 단순해도 다양하게 표현되는 음악을 알아봤다. 또한 참여자가 직접 일상생활의 느낌을 그림으로 스케치한 것을 멜로디로 만들어 보고 악기로 연주하여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며 음악표현과 작곡의 벽을 허물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각자의 인생곡을 공유하며 타인의 인생을 짧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3차시와 4차시에는 두 개의 조로 나누어 노래를 만들어보았다. 가사를 먼저 만들고, 어울리는 음이나 느낌을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면 강사가 악기 연주하여 곡 완성을 실현하였다. ‘나에게 보내는 노래’와 ‘친구’라는 주제로 두 곡이 완성되었다. ‘나에게 보내는 노래’는 생애전환기에 들어서며 그리운 사람이 생기고, 앞으로의 두려움이 있어도 노래를 통해 인생의 행복을 찾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자는 이야기를 담은 곡이다. ‘친구’는 어린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 지금은 볼 수 없는 친구, 여전히 내 곁에 있는 친구 등 참여자들 각자의 사연 속 친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도 함께라서 힘을 낼 수 있기에 오랫동안 함께하자는 이야기를 담은 곡이다.

5차시에는 완성된 음악을 다 함께 들어보고 가사와 멜로디를 익혀 녹음의 기반을 만들었다. 수업 이후에 각자 녹음한 곡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취합하여 음원 작업을 통해 노래에 참여자의 목소리를 담았다. 또한 노래에 어울리는 앨범 표지를 각자 그려보고, 마지막 소감을 나누었다. 참여자들 간 공통된 지점이 많아서 이야기하기 즐거웠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의 노래로 만들어져서 신기하고 유의미했다는 소감이 있었다. 코로나 때문에 갇혀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프로그램 덕분에 새롭고 즐거웠으며, 남은 인생 혼자보다 여럿이 외롭지 않게 살아야겠다고 느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모두에게 감사를 전하였다.

예술교육가 후기

채수진

누구나에게 사회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 사회는 가족, 학교, 직장 등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사회는 그 안에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우리 모두 그 역할을 해내기 위해 책임감, 의무감으로 삶의 긴 시간을 쏟아낸다. 그 긴 시간이 끝에 다다를 즈음, 돌보지 못해 덩그러니 놓여있는 ‘나’를 발견한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지만 그 사회 속에서 종속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만으로는 ‘온전한 나’를 찾을 수 없다. 그렇기에 사회 속에 있음에도 사회에서 분리시켜 나를 생각해 보는 것이 진정한 사회적 동물로써 균형을 맞춰나가고 ‘나를 찾아가는 것’에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다.

이번 ‘싱싱 프로젝트_나에게 보내는 노래’는 음악을 매개로 참여자들 모두가 ‘나를 발견하는 나름의 지혜로운 방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교육 강사로 수업을 진행하며 생애 전환기를 맞이한 50+세대의 참여자분들이 ‘나’를 돌아보고 안아주고 온전히 바라보기를 바랐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특별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각자 추억 속 음악으로 이야기를 풀어냈고 다양한 예술활동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함께 웃고 그리워하고 때로는 눈물짓기도 했다. 함께 나눈 이야기를 기반으로 우리만의 음악이 창작되었다. 음악이 주축이 되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이야기로 나의 삶을 공유하며 새로운 예술을 구축했던 경험이,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진하게 새겨졌길 바란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참여자 한 분께서 형제분들을 그리워하시며 작곡하신 곡을 보내주셨는데 그 음악에는 말로 미처 표현 못 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있어서 가슴 한켠이 뭉클했었다. 다양한 예술로 나를 표현하고 나를 발견하는 작업들이 참여자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이어져 언제나 ‘나’를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송민경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제껏 오프라인에서 해오던 것과는 다른 접근방식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진행하게 된 싱싱프로젝트 또한 그 상황을 피해갈 수 없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인해 싱싱프로젝트 '나에게 보내는 노래'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노래 만들기 수업'이라는 새로운 모험에 뛰어들게 되었다.

강사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나름대로 신중하게 수업을 계획했지만 화면 하나를 거쳐 공간 너머의 참여자들과 함께 제한된 시간 안에 노래를 창작해나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역시는 역시였다. 지난 몇 년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바와 같이 이번에도 역시 문화예술교육이 지닌 저력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상황은 분명 쉽지 않았지만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 공간을 뛰어넘어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우리는 '나에게 보내는 노래'를 완성해낼 수 있었다. 단순히 하나의 노래 제목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에게 노래를 보내는' 그 과정 자체를 완성해낸 것이 분명하다.

이제 30대 초반을 지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50+'세대의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던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들의 '인생음악'과 거기에 얽힌 사연들도 들어보았으며, 가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인생철학이 담긴 스토리들이 가사로 엮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 진행 강사였지만 오히려 삶을 대하는 신중년 세대의 다양한 관점들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작곡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서툴게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노래를 한 음 한 음 완성해가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나 자신에게 노래를 보내는 즐거움을 듬뿍 느꼈기를 바란다. 또한 완성된 노래의 가사처럼 '나는 어쩜 이리 소중한 존재인지'를 매일매일 느끼며 '선율에 몸을 실어 발걸음 경쾌하게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 후반부를 누리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싱싱프로젝트 2 <내 마음 드로잉>

"나, 돌아갈래!!" 엄마, 아내, 남편, 아빠, 누구의 그 무엇이 아닌 온전히 나를 찾는 특별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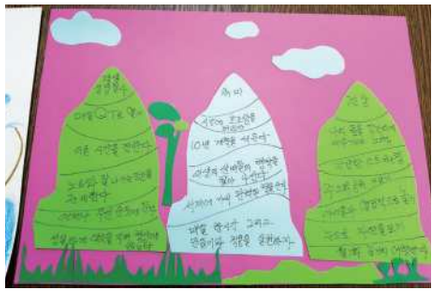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림실력 무방! 드로잉을 통해 나와 친해지고 내가 그린 나의 내면 초상화를 통해 삶을 싱싱하게 만들어보는 시간이다.

운영기간 2021.10.01.~10.29. 매주 금요일 10:00~12:00 (총 5회차)
운영대상 50세 이상 13명
운영장소 비대면 교육(Zoom)
참가비 무료
예술교육가 조선영(초선영), 박정은

교육내용

•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며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회차	주제/키워드	프로그램 세부내용
1	드러난 나	- 그림카드를 통해 자기소개하기 - 첫인상 알아보기 - 외적인 나에 대한 내면초상화 그리기
2	숨어있는 나	- 첫인상 반박, 수용하기 - 내가 좋아하는 것 찾기 - 분류하며 숨어있는 나 찾기
3	타인 속의 나	- 내 주변인 중 나와 결이 같은 사람 찾기 - 타인과 나 사이에 있는 것들을 떠올리며 내면초상화 그리기
4	고정된 나	- 가장 어릴 적 기억 이야기하기 -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여 그리기
5	변화하는 나	- 미래의 나로부터의 편지 - 산 모양으로 목표 그리기 - 내가 되고 싶은 나에 대한 내면초상화 그리기



운영과정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대비하여 비대면 진행 시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했다. 이에 '내면 드로잉'이라는 이름으로 대상자와의 이야기를 통해 느껴지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신 초선영, 박정은 강사님께 싱싱 프로젝트의 수업을 요청 드렸다. 촉박한 시간이었지만 흔쾌히 응해주셔서 순조롭게 교육을 준비할 수 있었다.

이번 수업도 이전 수업과 동일하게 참여자들에게 실시간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숙지의 시간을 가졌고, 교육키트와 안내문을 통해 보다 쉽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1차시에는 강사님께서 그동안 진행하셨던 내면 드로잉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 진행할 수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단순 펜 드로잉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신 분들도 수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앞으로 나눌 많은 대화에 앞서 서로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이 각자 듣고 싶은 별명을 정하고 이유를 말하고 다른 참여자들은 서로에 대해 외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을 전달했다. 그리고 타인이 바라보는 나의 외적인 이미지를 모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다.

2차시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실제 나와 타인이 바라보는 나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작성하여 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숨어있는 나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3차시에는 나와 타인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싫어하는 대상을 정한 뒤 그 사람과 나를 양극에 놓고 그 사이에 우리의 공통점과 차이점,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 작성하고, 작성된 글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 타인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관계해소의 방법도 찾아볼 수 있었다.

4차시에는 나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의 과거를 통해 잊고 있던 나를 떠올려보고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이야기를 바탕으로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압화를 이용해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다.

5차시에는 미래의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단어로 나열하고 무작위로 배열하여 그에 맞는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목표산을 그려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항목을 적으며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단위의 행동을 찾아보기도 했다.

수업이 끝나고, 바쁘게 살아가느라 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야기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다. 또 다른 참여자는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여유를 가져 느긋하게 상대를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소감도 전해주셨다.

예술교육가 후기

예술이 주는 위안

초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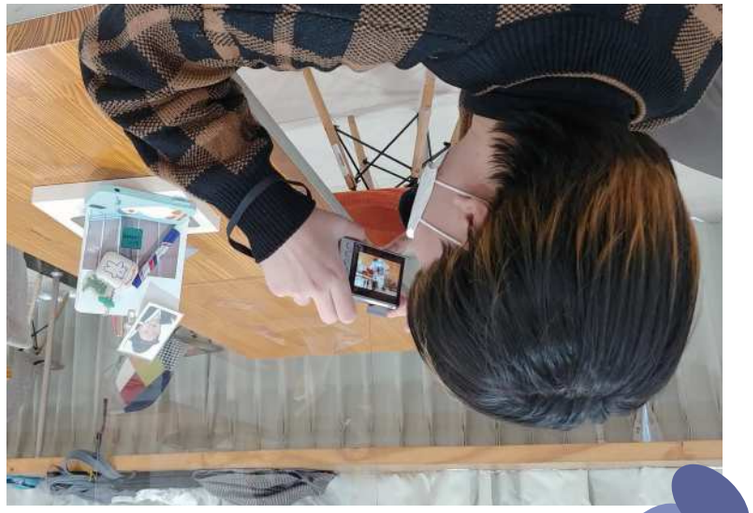
처음 '싱싱 프로젝트'의 취지와 방향을 듣고 기뻤습니다. 제가 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와 결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예술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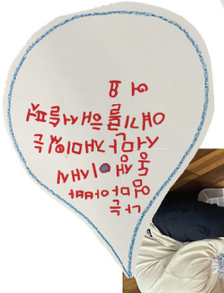
작가로서 저는 십여 년간 '내면초상화'라는 예술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한 단어'를 시민에게 받아, 즉석에서 간결한 그림과 글로 표현해드리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저를 다시 찾아와 위안이 된다고 하시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제가 작가라고 해도, 매번 멋지고 감동적인 작품을 즉석에서 그려낼 수는 없습니다. 평범한 그림이 사람들에게 가 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간이 흐르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면초상화는 그 과정을 돕고 있었습니다.

예술교육에 몸 담게 되었을 때 위의 깨달음은 자연스레 수업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나에 대해 무작정 돌아보자고 마음먹으면 불편함이 먼저 밀려옵니다. 예술은 그 불편함을 부드러움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예술교육자로서의 저는 생활과 동떨어진 예술이 아닌, 스스로를 돌아보는 도구로서 예술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싱싱 프로젝트에서도 예술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먼저 '타인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 '관계 속의 나', '과거의 나', '미래의 나' 등 주차별로 다각도에서 나를 굽어볼 수 있도록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 주제에 맞게 그림을 그리고 글 쓰는 시간을 배치했습니다. 재료도 참여자분들이 몰입하실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수업이었지만, 참여자를 50세 이상 분들로 제한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과 진행이 수월했습니다.

수업 시간이면 '어떤 나'를 만나게 될까 설레인다는 참여자분들을 보며 예술과 창작이 삶에 스며들 때 얼마나 큰 위안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재단과 박현지 문예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삶을 예술로

2021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결과자료집

발행인 이영훈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www.bpcf.or.kr
문의 032-500-2000

총괄 고동희
기획총괄 김희영
기획편집 안효정
편집지원 이슬기, 박현지
디자인 아이드디자인

부평구문화재단

© 2021 부평구문화재단

본 결과자료집은 부평구문화재단 지역문화팀
2021년도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기록과 보존을 위해 발행하였습니다.

본 결과자료집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평구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